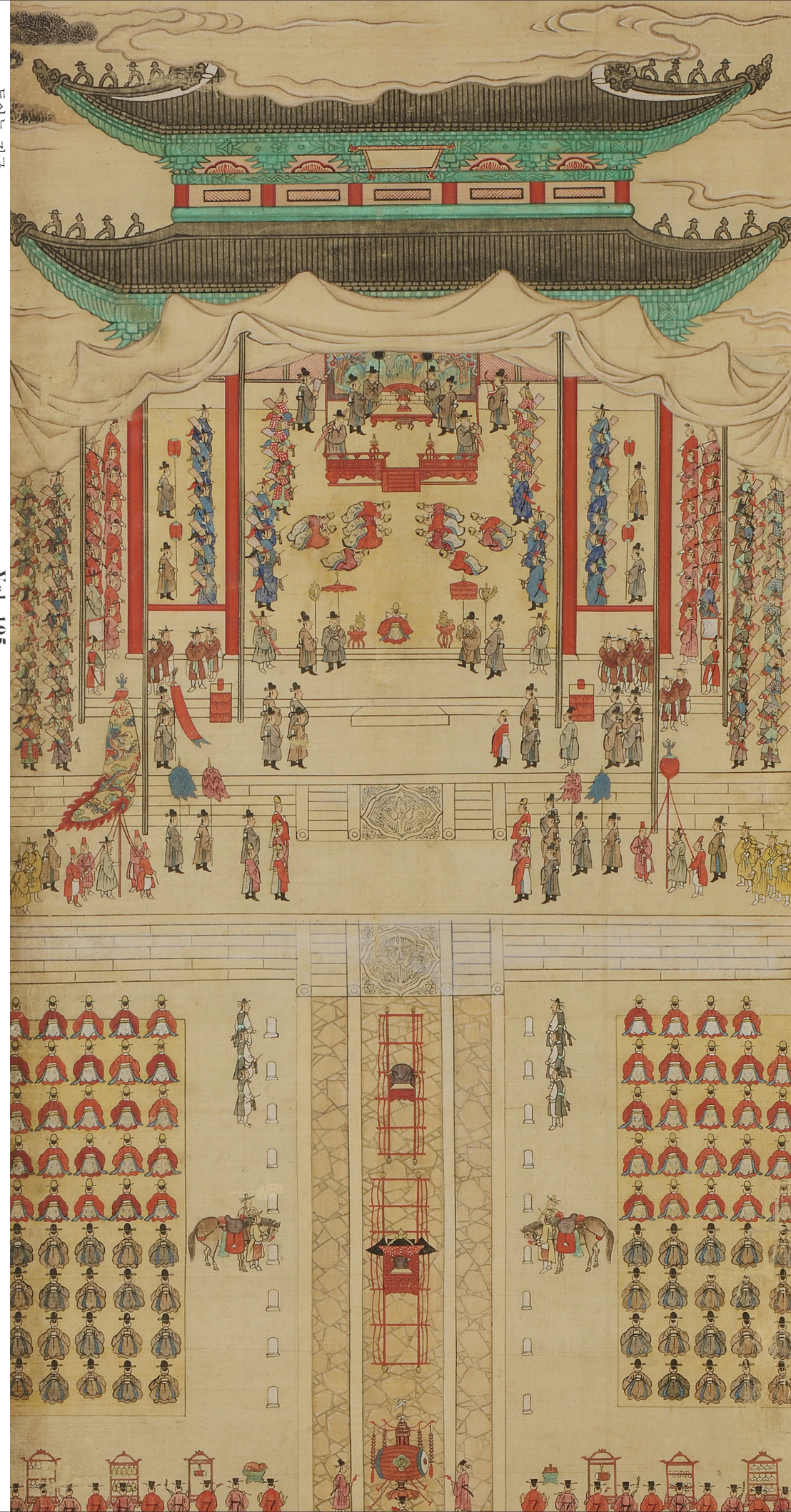


동아는 지금

Vol. 105

www.donga.ac.kr



동아는 지금

Vol. 105

*주소 변경 및 신규 구축 신청은 대외협력처(051-200-6042-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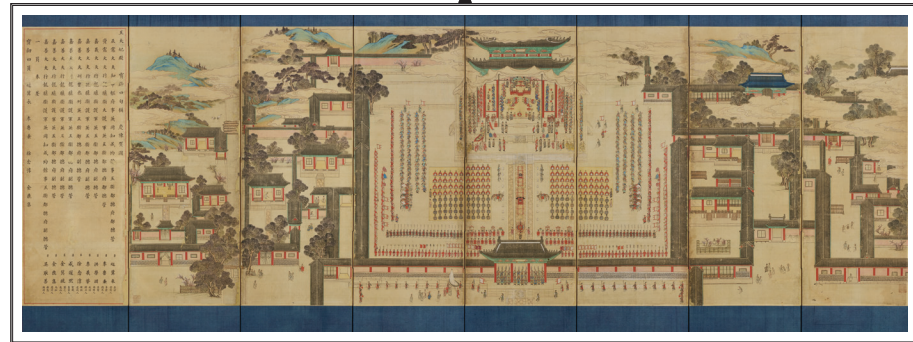
송학캠퍼스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구덕캠퍼스 (602-714)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
부민캠퍼스 (602-760)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COVER STORY

보물 제733호 헌종가례도병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소장)



동아의 숨결을 느끼다 Feel the Breath of Dong-A

동아인이 이룩해 낸 7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동아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혁신과 변화의 바람입니다.
이 변화는 대한민국을,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바꿀 것입니다.

결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동아의 선배들이 당당히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이 결을 따라 우리도 거침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끈질긴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상을 바꾼 동아인
그 숨결을 우리는 오늘도 느낍니다.

동아대학교 소식지 **동아는 지금** (통권 제105호)

발행일 2014년 10월 27일

발행인 권오창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fund.donga.ac.kr

디자인 DAEHOON COMMUNICATION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12 2F

T 051)200-6042-3

F 051)200-6015

T 051)898-0330

F 051)894-0016

CONTENTS

동아인의 숨
Breath
-동아대학교 소식-

동아인의 결
Texture
-발전기금 연보-

- | | | | |
|----|---|----|---------------------------------------|
| 04 | 동아대학교 LINC 사업단, 산학협력의 꽃을 피우다 | 44 | 인터뷰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경영학과 졸) |
| 06 | 동아대학교, 부산·울산·경남의 창업 클러스터가 되다 | 46 | 인터뷰 김백영 법무법인 삼덕 대표변호사(법학과 75학번) |
| 08 | 동아대학교, 각종 국가사업 선정으로 발전에 엔진을 달다 | 48 | 인터뷰 이병희 육경장학회 간사 (AMP40기) |
| 10 | 동아대 취업교육부터 성과까지 격을 높이다 | 50 | 인터뷰 김윤원 의학박사 (의학과 85학번) |
| 12 | 총장 취임 2주년 특집 남다른 성취는 도전에서 시작된다 | 52 | 인터뷰 김정길 씨 (동아대 용역직원) |
| 16 | 우리대학 뜨는 신규학과 | 54 | Naming Donation 팬코 글로벌 존 / 세정 휘트니스 센터 |
| 18 | 인터뷰 우진호 동문 (의학과 90학번) | 56 | 장학기금 수혜자 인터뷰 이흥수 / 강명진 / 김진욱 |
| 20 | 인터뷰 권민호 거제시장 (체육학과 81학번) | 58 | 기부미담 사례 |
| 22 | 인터뷰 정용모 경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박사(원예학과 81학번) | 60 | 발전기금 통계 |
| 24 | 인터뷰 정현민 드라마 작가 (신문방송학과 90학번) | 62 | 기부 캠페인 소개 |
| 26 | 인터뷰 권홍사 반도건설회장, 동아대 재경동문회장(건축학과 67학번) | 64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 28 | 교원소식 | 66 | 후원의 집 안내 |
| 32 | 가슴이 시키면 도전하라 김정철 학생 남미 여행기 | 68 | 참여방법 |
| 34 | 학생소식 | | |
| 36 | 동아대학교 병원 소식 | | |
| 38 | NEWS ROOM | | |

동아는 지금

Vol. 105

www.donga.ac.kr

LINC

동남권 지역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창조경제의 산실

동아대학교 LINC 사업단, 산학협력의 꽃을 피우다

-
-

최근 교육부가 2단계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사업단(이하 LINC 사업단)이 지난 1단계(2012~2013년) 사업에 이어 2단계(2014~2016년)에도 참여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동아대 LINC 사업단은 1단계 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최종 현장밀착형 2단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고 190억 원을 지원 받아 산학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난 1단계 사업의 눈부신 성과와 2단계 사업의 주요 계획을 집중 조명해본다.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동아대 LINC사업단, 눈부신 성과 이룬다

동아대 LINC 사업단의 지난 1단계 사업은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으며, 그 결과 눈부신 성과가 나타났다.

우선, 융복합 창조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진행한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동아대-세화그룹, 채용확정형 창의인재 기술개발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2013 산학협력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참석한 29명의 학생 중 19명이 채용됐다.

또한 산학연계교육 중 하나로 3,476명(2013년도 기준)의 학생이 이수한 캡스톤디자인은 규모면에서 동남권 대학 중 최대일 뿐 아니라 국내특허 52건, 국제특허(PCT) 2건, 유상기술 이전 2건 등의 결실로 이어져 그 성과 또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특성화 연계 전공 △스마트그리드 △플랜트엔지니어 △바이오헬스 △생물신소재공학△디지털애플리케이션디자인 △항공비즈니스 6개 연계전공을 개설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보다 넓은 전공 선택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으며, 374명의 학생이 이 과정을 통해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LINC사업단은 동남권 중소·중견기업 All-Set 맞춤형 기업지원체제도 구축했다.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으로 가족회사제도를 운영했고, 그 결과 1,030개(2013년도 기준)가 동아대와 교류를 체결해 산학협력 컨시어지를 통한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재직자 직무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 전반을 온라인-맞춤형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차세대산학협력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기업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지역과의 공생발전을 모색하다

동아대 LINC 사업단은 산학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뤄낸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기간 동안 이를 내실화하고 우수한 선도 사례와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단과대학별 'LINC사업 성과확산 워크숍'을 개최해 맞춤형 산학협력 정보 교류를 통한 교수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동남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융복합 창조산업 생태계 육성'을 비전으로 동아대 LINC 사업단은 2단계 사업의 추진 전략으로 △창조경제 분야의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융복합 프로그램 확대 △동남권 선도산업에 부합한 특성화 교육 체제 정립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 △지역거점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1-03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개교식
04-05 청년마당투어 Play&Talk
06 DACEL 2014

동아대학교, 부산·울산·경남의 창업 클러스터가 되다

부·울·경 유일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선정...125억원 국고 지원
청년마당투어 'Play&Talk'·'DACEL 2014'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대학은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쏟아 왔다. 하지만 동아대학교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주역

동아대학교가 지난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관학교식(式)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동아대 창업지원단은 정부로부터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약 23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난 2011년 일반형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창업지원단은 지난해까지 창업강좌 운영을 통해 9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82명이 창업해 약 51억 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청년마당투어 'Play&Talk'와 'DACEL 2014' 등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처럼 동아대 창업지원단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명실상부 부산·울산·경남의 창업 클러스터로 활약하며,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동아대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개교식과 청년한마당투어 Play&Talk

창업지원단은 올해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으로 거듭난 동아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창업 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에 선정된 창업사관학교 입소생 27명에게 소속감과 도전정신을 고취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승학캠퍼스 경동홀에서 '동아대학교 사관학교식(式) 창업선도대학 개교식'을 개최했다. 이날에는 창업선도대학 유관기관장들을 포함한 200여 명이 함께 자리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동아대 창업지원단은 창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한 심리적 허들을 제거하고자 같은 날 청년한마당투어 'Play&Talk'를 열어 대학 내 캠퍼스 창업문화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날 'Play&Talk'에는 창업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예비 청년 창업가 5명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멘토들의 피드백이 이어졌다. 또한, 이계익(쥬드림 빈 대표이사)가 자신의 창업 스토리를 예비 창업가들과 함께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예비)창업기업 발굴·성장 지원사업, DACEL 2014

'DACEL 2014'는 (예비)창업자의 실제 사업화와 성장 모멘텀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역 최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기반의 지원사업으로, 지역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대 창업지원단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은행이 함께 기획한 사업이다. 이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8월 13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산학연구관에서 열렸다. 이날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캠프연계형 지역창업경진대회(DA-V)'와 기창업자를 위한 '졸업기업 성장 촉진 및 투자연계지원'으로 나눠 시상이 진행됐으며, 예비 창업자 5팀과 기창업기업 10팀에 시상금과 사업화지원금, 성장촉진자금 등 총 2억 원을 전달했다.

청년 창업가의 길라잡이

동아대가 부·울·경 창업 클러스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업지원단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대 창업지원단은 대학생 및 일반인 창업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대학의 연구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해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책임멘토 4명이 상주하면서 (예비)창업자에게 집중식 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하여 창업성공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후속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코칭과 네트워킹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확실한 길라잡이가 되었다.

동아대학교 각종 국가사업 선정으로 발전에 엔진을 달다

-
-

01 '2014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4개 사업단 선정... 국고 88억원 지원

동아대학교가 '2014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이하 CK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가 시행한 CK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CK사업에 선정된 4개 사업단은 △생명산업 통합연계교육 사업단(단장 김도훈 유전공학과 교수) △생명의료윤리 전공 특성화 사업단(단장 이상목 철학윤리문화학과 교수) △동남권 지역사회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과新高교육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통섭형 인재양성 사업단(단장 박은경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기능성 재료 특화 화학교육 사업단(단장 김효준 화학과 교수)으로 총 88억 원을 지원받는다.

'생명산업 통합연계교육 사업단'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생물소재 개발과 친환경 농업 및 농식품 검역 분야에 집중하여 통섭형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생명의료윤리 전공 특성화 사업단'은 철학·윤리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생명의료윤리 전반에 대해 이해하며 이를 관련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생명공학 및 바이오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적 생명의료윤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어 '동남권 지역사회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과新高교육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통섭형 인재양성 사업단'은 사업단 명칭과 같이 통섭형 인재양성을 통해 새로운 취업 활로 개척에 앞장설 전망이다. '기능성 재료 특화 화학교육 사업단'은 기능성 재료 특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협력적 창의인재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02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 선정

대입전형 개선노력 우수... 부·울·경 지역 최대 국고 지원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준영)가 지난 6월 17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동아대학교가 대입전형 개선 노력이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별 대입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하고자 올해 최초로 시행됐다. 총 133개의 4년제 대학이 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대학·고교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65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부산지역에는 동아대를 비롯해 부산대, 동의대, 부산교대, 부산가톨릭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됐다. 동아대는 사업비로 총 8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동아대는 우선선발과 정시 분할모집 등을 폐지해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학생부를 바탕으로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을 운영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우링크시스템 △다우림 전공체험 프로그램 △새내기 레벨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강기수 입학관리처장은 "대학 차원에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다"며, "앞으로도 고교교육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전형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03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정·육성 사업' 선정

창업지원 혁신인프라와 사업화 역량 활용해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 및 육성

동아대학교(총장 권오창)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정·육성 사업'에 선정됐다.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정·육성 사업'은 특구 내 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아이디어와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창업기반조성과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동아대는 창업지원 혁신인프라와 사업화 역량을 활용해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창업 아이템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2년간 국고 4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게 된다.

김동규 동아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선정은 동아대학교가 창업선도대학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창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학교 취업교육부터 성과까지 격을 높이다

-
-

불황으로 인해 취업률 지표와 구직자의 체감 경기 역시 어렵게 느껴지는 가운데, 동아대 취업실적이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구축해온 단단한 교육과 취업지원역량이 빛을 받으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동아대 취업역량과 지원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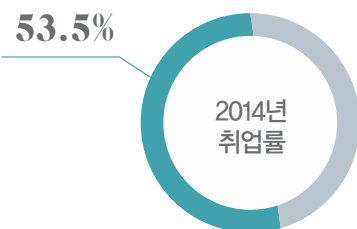
졸업자 3000명 이상 대학 (전국 34개교) 중

▶ 동아대 영남권 대학 취업률 2위

순위	학교명	취업률(%)
1	동의대학교	55.5
2	동아대학교	53.5
3	울산대학교	53.1
4	부경대학교	52.3
5	대구대학교	52.2
6	계명대학교	52.1
7	부산대학교	52.0
8	영남대학교	50.8
9	경북대학교	49.7

▶ 동아대 전국 대학 취업률 1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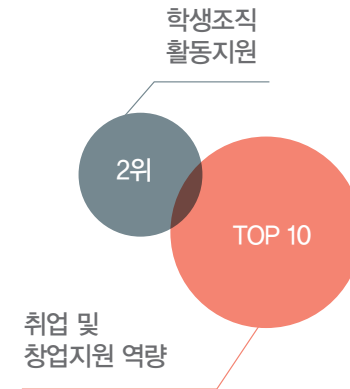
순위	학교명	취업률(%)
1	고려대학교	69.3
2	성균관대학교	66.5
3	연세대학교	64.1
4	서울대학교	61.0
5	인하대학교	60.2
6	한양대학교	58.7
7	가천대학교	56.7
8	인천대학교	56.5
9	동의대학교	55.5
10	조선대학교	55.4
:	:	:
14	동아대학교	53.5
15	건국대학교	53.1
16	울산대학교	53.1
17	부경대학교	52.3
18	대구대학교	52.2
19	계명대학교	52.1
20	부산대학교	52.0
:	:	:



동아대 2014년 취업률 53.5% 영남지역 2위, 전국 14위

지난 8월 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따르면 동아대는 취업률 53.5%를 기록, 졸업자 3천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업률 2위, 전국 14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취업률이 2년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동아대는 2012년 대비 7% 가량 올랐다. 이에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수준 높은 교육과 취업지원역량의 우수성이 주목받고 있다.

동아일보, 딜로이트컨설팅 주관, 2014 청년드림대학 평가서 동아대 학생조직활동지원 2위, 취업 및 창업지원 역량 TOP10, 2013년에도 TOP 10 대학 선정



취업률이 발표되기 이틀전인 8월 26일 동아일보는 2014년 청년드림대학평가에서 동아대를 우수 사례로 들며, 우수한 취업시스템을 보도했다. 청년드림대학은 입시 성적 순위, 대학의 연구력 순위 위주로 고착화된 대학의 서열을 깨고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동아일보에서 실시하는 대학 평가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동아대는 학생조직활동지원 부문에서 2위에 오르는 등 취업 및 창업지원 역량이 전국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평가에서도 △금융플랜 지원 1위 △취업 본인 적합정보 2위 △학생조직활동 3위 △비정규교육과정 3위 등 가장 많은 4개 항목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Top10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동아대 취업시스템, 수도권 대학 벤치마킹 대상 취업지원실 지원 노력 돋보여



동아대는 2·3학년 취업동아리 '리더스 주니어'(Leaders Junior), 4학년 대기업 취업준비반 '리더스 클럽'(Leaders Club), 4학년·미취업졸업생 중견기업 취업준비반 '프론티어즈'(Frontiers) 등 학생 개인의 학년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취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취업 캠프·직종별 교육과정·맞춤형 상담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취업지원실 직원이 취업캠프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학생들 눈높이에서 취업 교육을 실시코자 정규 토익시험에 응시해 만점을 받고 모의 SSAT 전국 상위 10%의 성적을 올리는 등 화제가 되며 수도권 대학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취업자 절반이상 1000대 기업, 은행, 공사, 공단 등으로 진출



그럼 이렇게 배출된 학생들은 어디로 진출할까? 동아대 취업지원실 2013년 6월 1일자 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52%가 △삼성그룹(65명), 현대그룹(28명), 롯데그룹(16명), LG그룹(14명), CJ그룹(14명), 대우조선해양(12명) 등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과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은행 및 증권, 보험사 등 금융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 부산신항만과 같은 공사 및 공단, 병원, 공무원, 연구소, 협회 등으로 진출했다. 이는 2012년 8월 및 2013년 2월 졸업자에 대한 조사결과이며, 일반 기업을 지망하는 학생이 적은 스포츠 및 예술 전공 학생이 포함된 수치이다.

권오창 총장 취임 2주년 특집

남다른 성취는 차별화된 도전에서 시작된다

2년 전 취임식에서 “대학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면모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며 대규모의 변화를 예고했던 권오창 총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대내외적인 개혁을 통해 동아대의 위상을 되찾아 가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와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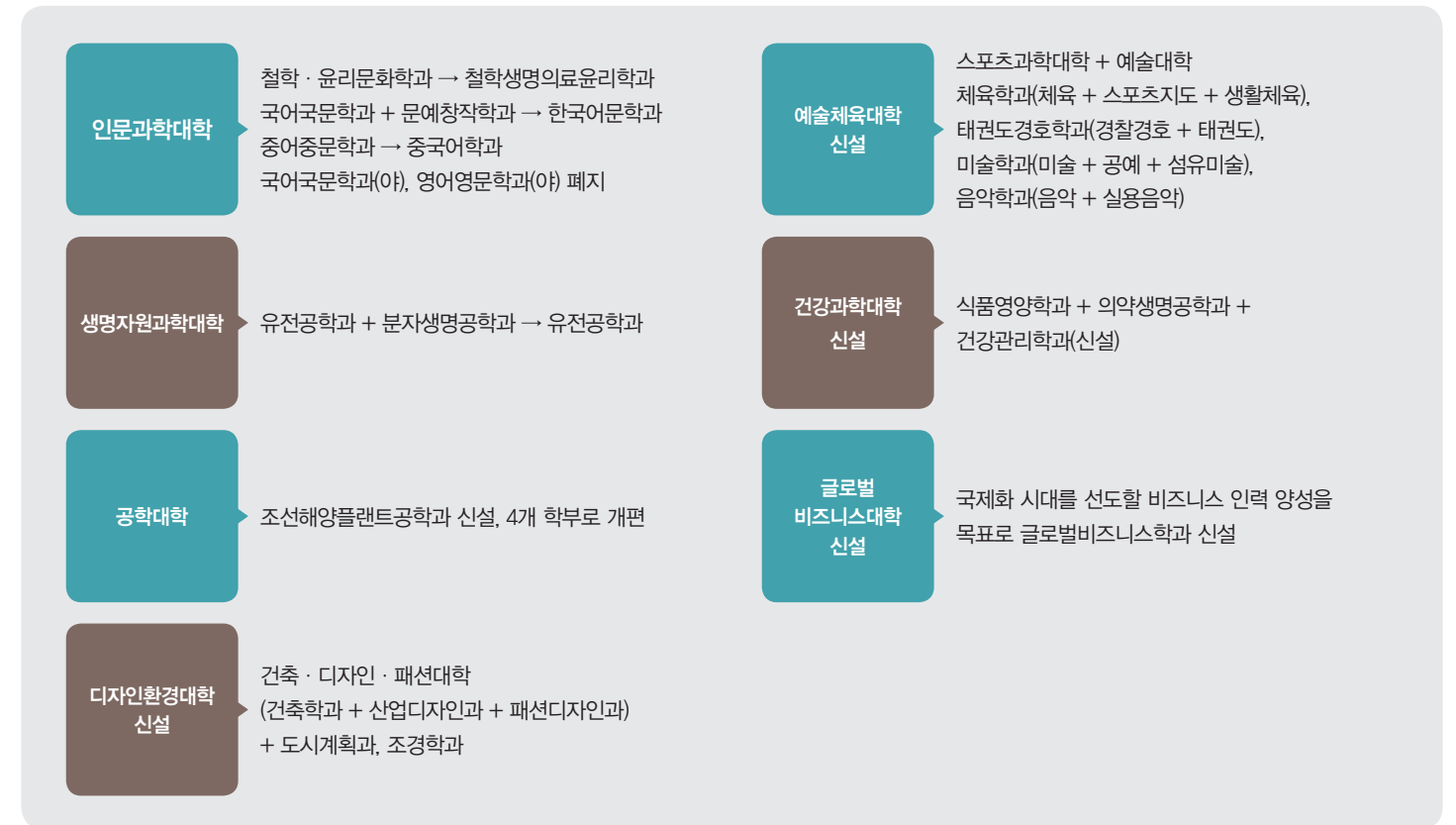
대학발전기획추진단 발족 및 대학 발전계획 Quantum Leap 2024 수립

동아대학교 재직시절 기획처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고 재단 상근이사로 활동했던 권 총장은 취임 다음 달인 2012년 9월부터 대규모 변화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대학발전기획추진단을 발족해 대학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8월 활동을 마무리한 1기 위원회는 학생, 학사·학제, 행정, 재정, 교수역량, 캠퍼스조성, 국제화, 산학협력 등 8개 분야에 69개 실행과제를 도출해 추진했으며, 현재 2기 위원회가 학제, 교육혁신, 교수역량, 행정, 대학원, 경영혁신, 산학협력 등 7개 분야에 33개 실행과제를 도출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대학 발전계획인 Quantum Leap 2024를 통해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하는 동아시아 거점대학”이라는 대학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특성화, 국제화, 내실화, 효율화 등 4대 발전전략 아래 교육시스템을 개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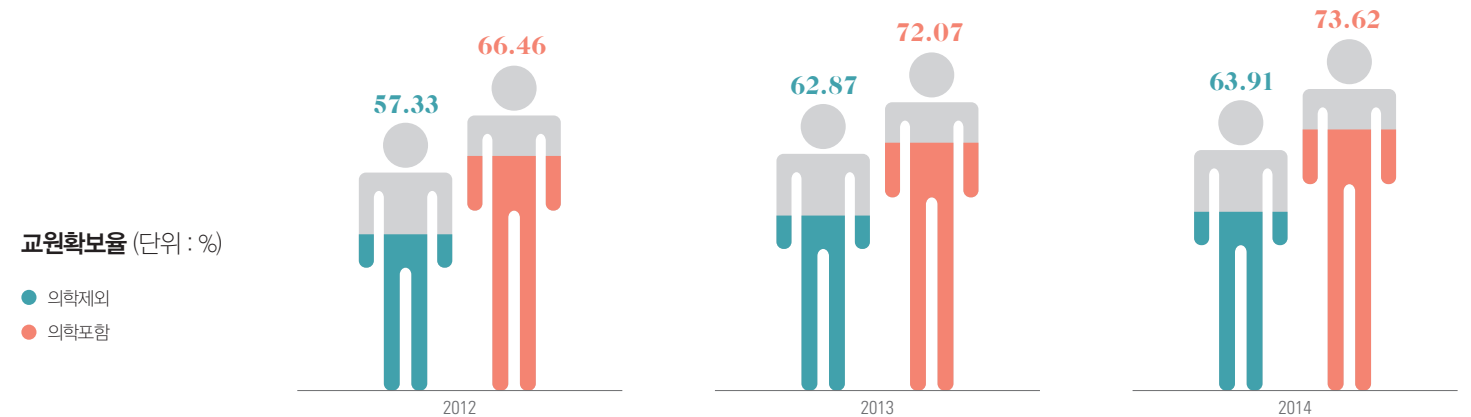
미래지향적 학사·학제개편

대학발전기획추진단 1기 역점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특성화분야를 육성하고, 유사학문분야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대학 및 학과 경쟁력은 물론 경영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2015학년도 학제개편이 완료되었다.



교원확보율 대폭 상승, 교원트랙제 도입 등 교수 역량 강화

2012년 66.4%였던 교원 확보율이 2014년 73.6%(의학 포함)로 대폭 증가했으며, 교수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산학, 일반으로 구분하는 교원 트랙제를 도입했다. 또한 연구 및 교육 등 개인성과 향상을 위해 신규 임용되는 모든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해 교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캠퍼스 마스터플랜 및 특성화 계획 수립 등 교육환경 개선

승학캠퍼스(기초 및 응용과학, 공학분야 중심 연구·산학협력캠퍼스), 구덕캠퍼스(의학중심의 메디컬 캠퍼스), 부민캠퍼스(대외교류 및 문화캠퍼스)를 특성화하고 단계별로 캠퍼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현재 승학캠퍼스 내에 예술대학과 학생기숙사 신축공사와 스포츠과학대학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승학캠퍼스 예술대학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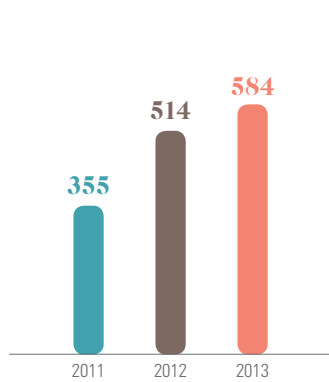
승학캠퍼스 스포츠과학대학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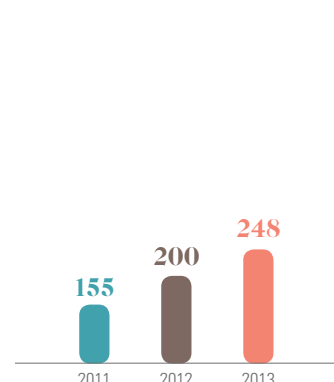
승학캠퍼스 학생기숙사 신축

학생 지원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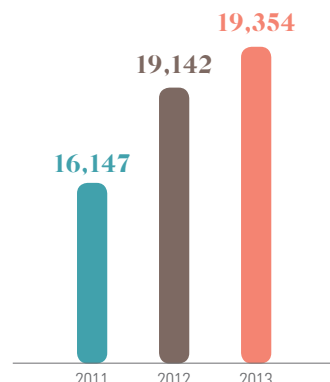
동아대는 지속적인 장학금 확충사업을 통해 2011년 355억 원이던 장학금 지급 총액을 2013년 584억 원으로 늘리며 1인당 장학금 수혜액 및 수혜학생 수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정보실(1개팀)을 취업지원실(3개팀)로 확대 개편하고, 취업지도교수제도를 임명하는 등 전국 최고로 손꼽히는 취업지원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장학금 지급총액 증가 (단위 : 억 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 증가 (단위 : 만 원)



장학금 수혜학생 수 증가 (단위 : 명)



산학협력관 휴게공간 조성



자연과학대학 동아리방 환경개선



스포츠과학대학 휴게공간 조성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교류관(가칭) 조감도

동아대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중구 부평동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국제교류관(가칭)을 건립하고 있다. 국제교류관이 2015년 2월에 완공되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및 국제교류 관련 시설이 들어서 국제화 프로그램의 향상과 유학생 유치 확대 등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 대학과의 국제교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168개이던 자매 대학이 183개(2014년 7월 31일 기준)로 확대되었다. 2012년 12월에는 동아대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 호치민국립기술사범대학교 내에 국외 센터로는 처음으로 '동아대학교 한국어센터'가 개소했으며, 2014년 4월에 중국 화중농업대학에도 두 번째 한국어센터가 설립했다.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한 성과

발로 뛰는 총장을 지처했던 권 총장은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주요국책사업과 발전기금을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정·관·재계 동문을 주축으로 구성된 동아비즈니스포럼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표 포럼으로 정착하며 현재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많은 회원이 활동중이다. MOU 체결 기관도 2011년 275개 기관에서 2014년 387개 기관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	2012. 09. 01 ~ 2018. 02. 28	60억 원
환경보건센터 지정 사업	2012. 10. 01 ~ (무기한)	1차 : 2.7억 원 / 2차 : 4.2억 원
건설교통기술 지역특성화 사업	2013. 05. 01 ~ 2017. 12. 31	60억 원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	2013. 06.15 ~ 2018. 06. 14	135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2013. 08. 06 ~ 2015. 12. 31	10억 원
BK21플러스 사업	2013. 09. 01 ~ 2010. 02. 28	60억 원
LINC사업 2단계	2014. 03. 01 ~ 2017. 02. 28	190억 원
통일부지정 통일교통센터 유치	2014. 03. 01 ~ 2016. 02. 28	3억 원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2014. 03. 01 ~ 2019. 03. 31	125억 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2014. 07. 01 ~ 2019. 02. 28	88억 원

대학기관평가 인증 부산경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모든 영역 충족

2013년 12월 동아대는 부산·경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한 대학기관평가 인증에서 6개 영역(△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54개 준거를 모두 충족하며, 명실공히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 선정

2014년 1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평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350여 개 대학 중 49개 대학만 인증)되어, 대학 간 국제교류 증진과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대학 뜨는 신규학과

지난해 동아대학교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학과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대학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 학령인구 감소,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라는 격변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경쟁력과 내실을 동시에 갖춘 미래지향적인 학제개편을 통해 탄생한 동아대학교의 신규학과, 그 면면들을 살펴보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국제화는 현대사회에서 이미 선택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된 지 오래다. 국가와 대학, 그리고 개인은 국제화에 필요한 어학과 국제화 마인드가 없다면 국가 간 경쟁과 개인 간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학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학년도에 새롭게 창설된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동아대학교 최우수 대학인 국제학부를 계승·발전시켜 탄생했다. 우리 학과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영어 및 제2외국어를 기반으로 국제감각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인정하는 국제화를 선도하는 학부로서 글로벌비즈니스학과만의 독자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모든 졸업생은 영어를 필수로 하고,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선택하여 2개 외국어의 능통한 구사능력을 함양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인턴십, 어학지원 프로그램, 장학지원 프로그램,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동북아국제대학원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라는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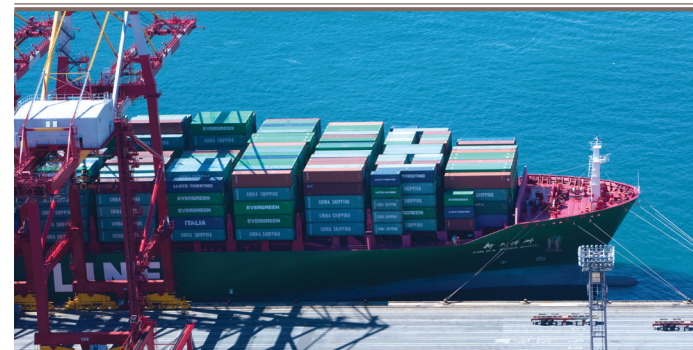
졸업 후 진로

- 국제기구, NGO, 국제봉사 단체 등
- 국제통상, 물류, 금융 관련 업종
- 기업의 국제무역 분야 및 외국계 기업
- 외교관,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Department of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Plant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플랜트 강국의 중심이자 조선해양대국의 자부심이다. 이에 동아대학교는 2015년 조선해양플랜트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학과를 신설했다.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는 21세기 해양개발 시대를 열어갈 첨단기술인 조선해양기술 및 해양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에 관한 기초이론과 산업체의 실무교육을 반영한 복합적 실무기술 위주로 교육한다. 이를 통해 조선 해양공학 산업, 연구, 학계의 지도자적 인재를 육성하며, 조선해양플랜트 공학에 관련된 실용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 및 전공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한다.

일반적으로 조선해양공학과와 비교하여, 해양관련 전공이 20%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교과과정으로는 전문 해양플랜트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동아대학교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는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해양플랜트 관련 교과목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했다. 또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10년 이상 실무를 경험하신 분들을 교수로 초빙했다. 대학원에서는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조선해양공학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토대로 산업현장과 관련 연구기관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핵심적인 연구가로서의 연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자 한다.



졸업 후 진로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대형 및 중소형 조선소에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에 대한 제조, 관리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
- 선박관련 국내외 검사기관, 협회, 설계유역회사 및 해운회사 조선해양 관련기관 진출
- 정부기관의 기술공무원, 국내 외 대학원 진학 및 교수역임,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혹은 대형조선소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등

건강관리학과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현대사회는 의료기술 발전, 경제성장,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전 생애를 통해 건강한 삶의 질 유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동과학, 의학, 보건학, 노인학, 대체의학 등의 학제 간 융합을 통해 전문적이고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건강관리학과에서는 성인질환의 예방과 치료, 건강과 체력의 유지 및 증진, 상해 예방·처치 및 재활 등 건강관리에 대한 운동과학, 의학, 보건학, 노인학, 대체의학 등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여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능력을 함양시키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합리적인 영양섭취 그리고 신체활동과 관련된 부상 등에 관해 상담 및 교육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운동 전문 지도자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운동과학, 의학, 보건학, 노인학, 대체의학 등 건강 관련 분야의 기초지식 습득뿐 아니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 건강관리 지도방법, 상해 예방·치료 및 재활 방법에 관한 내용 등을 배우게 된다.



졸업 후 진로

- 대학교수, 공무원, 운동과학 연구시설 및 기관의 연구원, 건강 상담전문가, 문화센터 운영팀장, 임상운동사, 체력관리지도자, 선수·개인 트레이너, 프로팀 선수재활, 보건소 및 병·의원 의료기관, 노인복지(요양) 시설 및 병원, 노인 복지 관련 연구소(교육기관), 실버타운, 사회복지 시설(복지기관), 대학원 진학

나눔과 섬김의 인술(仁術)을 펼치다

우진호 동문
(의학과 90학번)

흔히 ‘의술(醫術)’을 가리켜 ‘인술(仁術)’이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 그 말 속에는 의사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을 것이다. 머나먼 베트남에서 인술을 통해 동아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동문이 있어 만나보았다. 우진호 동문, 그가 걸어 온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



베트남에서 4년째 의료봉사 중인 우진호 동문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을 1990년에 입학하여 동아의료원에서 안과를 전공했습니다. 아내도 1992년도에 농학과(현재 생명공학과)를 입학하여 1996년에 졸업한 동문입니다. 자녀로 지명(15) 지월(13) 지혜(10)가 있습니다. 울산병원 안과 과장, 안양 샘병원 안과 과장 및 전주 삼성안과 의원 근무를 한 후 현재 베트남 다낭에서 비전케어 베트남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베트남에는 2010년 8월 6일에 입국하여 4년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최북단 하장성에서 하장 시(市) 보건국과 하장성 안과 병원과 함께 일 년에 두 차례 외래진료 및 무료 백내장 개안수술 사업을 약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 년에 3-4차례 일반 의료 봉사팀과 협력하여 광남성, 평민성 및 하장성 등지에서 무료 진료 봉사 사업도 하고 있고 무료 봉사 사업 후에 발견된 유전성 빈혈 환자, 간질 발작 환자 등의 환아들에게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낭 시의 가난한 산간지역인 화방현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시력 검진 및 안경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동

의료원 안과와 협력하여 베트남 의사 두 분을 동아의료원에 연수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수속을 마치는 대로 두 분의 베트남 의사가 한국으로 연수를 가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곳에서 의료봉사를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베트남에는 10여 년 전부터 기독교 의료봉사 단체의 팀원으로 매년 갔었는데 베트남 환자들이 진료와 수술 받은 후 감사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트남에서 살면서 베트남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염려와 반대를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먼 나라에서 고생할까봐 그러셨겠지요.

베트남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행정입니다. 실질적인 내용보다도 서류를 더 중요시 하는 베트남 문화에서 각 활동들마다 허가서를 받아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허가 받는데 보내야 하지요. 하지만 작년 10월에 비전케어 베트남 지부를 베트남 외교부에 정식으로 등록하면서 모든 수속이 훨씬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기금을 통해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본부에서 오는 재정은 제한적이라 개인적으로 모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환자는 많은데 여건이 충분치 못해 안타까워만 하는 상황도 가끔씩 있고요, 그 외 문화나, 기후, 음식 등은 비교적 잘 적응한 터라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보람을 느낄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면 아무래도 진료받은 환자들이 고마움을 표시할 때입니다. 특히 수술 받은 환자들이 다음 날 환히 밝아진 눈 때문에 감격하며 저의 두 손을 꼭 잡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간의 준비기간 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잊혀지면서 뿌듯해집니다.

의료봉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특별히 심장 수술 환자 한 분을 도왔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낭 시(市) 적십자사의 소개로 한 젊은 여자 환자를 소개 받았는데 집에 방문했을 때 좁고 허름한 집에서 10여 명의 대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 금액의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절망하고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꼭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몇 분의 후원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다시 만났을 때 그 환하게 웃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일상은 어떠한가요?

베트남은 일과가 일찍 시작됩니다. 아침 7시 반 정도면 모든 관공서와 상점들이 문을 엽니다. 아마도 한 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 둘을 학교에 보내고 직원들과 미팅을 한 후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나가서 현장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없는 날은 사무실에서 허가 등에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를 봅니다. 아내도 NGO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내가 다낭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과에서 통역, 번역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 2년간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베트남어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낭 안과 병원에서 베트남 현지 의료체계와 의학용어들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살아가는데 언어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베트남 현지 사립학교에 보내서 공부

를 시켜 보았는데 베트남어로 수업을 해야 하는 환경이라 적응에 실패하고 현재 세 아이들 중 큰 아이들 둘은 인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막내는 호이안 시에 있는 국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 따라 온 아이들 고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 너무 잘 적응을 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을 만나면 좀 어색해질 정도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첫바퀴 돌아가는 삶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한국에서의 의사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좌우명 혹은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지금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자는 것이 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 자신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다낭에 병원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병원급은 아니더라도 안과가 포함된 클리닉이라도 좋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라 이윤으로 가난한 환자들을 도우는 것이 목적이지요.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새로운 그 일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용기 있게 도전해 보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뜨거운 가슴으로 동문과 함께!

권민호 거제시장
(체육학과 81학번)

지방의 작은 시·군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나름의 특색을 살려 경쟁력을 갖추게 된 작지만 강한 도시가 있다. 평균연령 33.1세의 젊은 도시, 주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도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조선 산업의 메카. 바로 거제시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청렴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권민호 거제시장을 만났다.



먼저 축하인사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동아대 동문들이 함께 재선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임기가 긴 경우에는 누구나 매너리즘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앞으로의 4년의 임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현안들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실 계획입니까?

먼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제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두 번째는 대한민국 소득 1등 도시 이면에 있는 사회소외계층을 잘 돌보고, 이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거제시가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그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으로 급성장한 도시인 만큼, 산업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거제시가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제게 주어진 4년의 기간동안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권 시장님께서서는 우리 동아대학교 동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의 대학시절을 추억해 본다면,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는 1981년, 스물일곱 나이에 동아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처절한 가난 속에 살았어요. 남의 집에서 소 여물을 주는 일을 하면서 겨우 중학교에 진학했고, 학교 급사를 하면서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었고, 가난 속에서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여덟 나이

에 고깃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 스무 살에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그러곤 군대에 다녀와 스물일곱 만학도로 동아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원래라면 74학번으로 입학해야 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을 돌아갔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육상선수를 했었어요. 그때는 훈련을 하면 밥을 주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훌륭한 체육지도자가 되어 저같이 가난한 소년들에게 꿈을 꾸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교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인 것 같지만 스물일곱에 대학을 들어가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없었으면 어떻게 박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박사과정을 마친 뒤 경남대, 거제대, 동아대에서 출강을 하며 강의를 할 수 있었고, 모교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열정의 삶이었습니다. 권 시장님을 멘토로 삼고자 하는 후배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처절한 가난 속에서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 다. 어떠한 일을 도전하더라도 그 도전에 주눅 들지 않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것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1950년대 중반과 지금의 시대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의지만 꺾이지 않으면 뭐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결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달콤하고 쉬운 것을 지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동아대학교 동문 60여 명이 당선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들 동문들과 함께 모교의 발전에 많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동문들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모교를 빛내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동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선출직에 나와서 당당하게 당선된 동문들이 정말 그 지역사회나 역할에서 모범이 되어서 “동아대학교 출신들은 어떤 일이든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60여 명의 동문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마련해, 우리가 모범이 되어 모교 발전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동아대학교 18만 동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아대학교 동문들. 동아대라는 이름을 들으면 항상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40여 명의 동문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든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만 동문들이 그냥 두면 하나하나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힘으로 뭉치면, 모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교에 애정을 갖고 하나로 힘을모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상식을 깬 거베라 '그린볼' 화훼산업의 미래를 그린다

정용모
(경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박사, 원예학과 81학번)

독특한 모양의 꽃이 탄생했다. 축하 화환 장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꽃 거베라. 경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정용모 박사는 이전의 거베라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형시켜 밤송이를 꼭 닮은 거베라 신품종 <그린볼>을 개발했다. 16년간 거베라 품종 개발에만 매달려온 그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박사님이 이번에 개발한 거베라 신품종 <그린볼>은 어떤 꽃인가요?

거베라는 주로 축하용 화환으로 사용되는 꽃입니다. 그래서 매년 3~4월과 10~11월 사이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 성수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가격하락으로 인해 재배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린볼은 종전 거베라와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꽃입니다. 소형화하고 둥글게 변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꽃잎이 퇴화되어 녹색 공 모양으로 생긴 특이한 품종입니다. 일반 거베라는 꽃꽂이용이나 축하화환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었지만 변이개체인 그린볼은 축하화환보다는 꽃꽂이 소재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는 거베라를 다양한 용도로 연중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송이 닮은 거베라 신품종 '그린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대단한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작업을 거쳐서 이뤄지는 성과입니까?

많은 농가들이 네덜란드 품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 품종을 가꾸게 되면 로열티를 네덜란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신품종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 신품종 개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조직배양이라든지 증식기술이 집중 투입되기 때문이죠. 거기다 신품종 개발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한 품종을 개발하려면 최소 6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걸립니다. 보다 나은 형질의 개체를 선발하고 다시 증식을 해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품종보호출

원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이번에 개발한 그린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거베라 공급회사가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플로리스트(社)라고 그쪽에서 우리 화훼연구소를 방문해 그린볼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린볼 외에도 제가 개발한 4종류의 품종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도 한번 심어보고, 시장성을 타진해보겠다고 한 것이예요.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제 그린볼은 네덜란드에서 품종 보호권 등록 대기 중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종묘를 외국에 수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린볼을 심고 판매하게 되면 그 로열티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님이 개발하신 거베라 품종은 앞으로 국내 화훼농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거베라 재배 농가 중에서 그린볼을 재배해보겠다는 농가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빨리 상품화가 될 줄 몰랐어요. 상품화가 첫 관문이거든요. 시장성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시장성을 조사하기 전인데도 농민들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그린볼이 전국 화훼재배 농가로 본격 보급되면 장기적으로 로열티 부담이 줄어들고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사님은 지난 16년 동안 거베라 품종 개발에만 한길로 매달려 오셨는데,

거베라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인가요?

거베라는 일 년 내내 피는 꽃입니다. 장미도 한 철이었는데, 거베라는 일년 내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한 포기에 1년 동안 50송이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송이씩 수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농가소득도 높은 것이죠. 거베라의 꽃말이 '신비로움'이에요. 정말 다른 꽃과는 달리 참 신비한 꽃입니다. 제가 올해로 17년째 연구하면서 49품종이나 개발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한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사님께서 어떻게 이쪽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셨나요?

저는 동아대 원예학과 81학번이고요, 97년 2월

에 박사학위를 받아 이곳 원예연구소에서 97년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남 언양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화훼, 원예를 배울 수 있는 동아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생활은 거의 촌사람들의 생활과 비슷했습니다. 그때 당시 캠퍼스가 괴경에 있었는데, 수업이 마치면 바로 온실로 달려 갔습니다. 거의 온실에서 살았던 거죠. 하단 캠퍼스로 넘어와서는 온실이 없었으니까 건물 옥상에 온실을 만들었어요. 온실 아니면 도서관, 거의 그대로 학창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거베라는 사실 향기가 없는 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생명공학기법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의 연계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앞으로 정년을 맞더라도 거베라 육종과 품종개발에 꾸준한 관심과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생의 반전을 이끈 선택, 명품 드라마를 쓰다

정현민
(드라마 작가, 신문방송학과 90학번)

고뇌하는 혁명가 정도전의 모습을 그려 웰-메이드 드라마로 평가를 받는 KBS 대하사극 '정도전'. 역사적 사실의 충실한 전개 위에 지금의 시대상을 관통하는 정치 논쟁, '민본주의'를 부르짖은 정도전의 외침은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처럼 작품의 인기와 함께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 바로 드라마 '정도전'의 집필로 각종 상을 휩쓸며 단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작가로 꼽히는 정현민 동문이다.

보좌관에서 드라마 작가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다

명품 드라마 뒤에는 명품 작가가 있기 마련이다. 데뷔 5년차에 대하드라마 '정도전'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정현민 작가, 그의 인생에도 드라마 못지않은 멋진 인생의 반전이 있었다.

“저는 부산기공을 졸업하고 공장에서 노조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기자가 되고 싶어서 야간 입시학원을 다녀 90학번으로 동아대 신방과에 입학했죠. 제대로 들어왔으면 88학번이었죠. 졸업하고선 기자로 일하다 10년간 국회에서 노동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가 드라마 작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보좌관 생활 8년차 때였다. 한 드라마 작가를 만났는데, 동아대학교 선배라고 했다. 보좌관들의 세

계를 다루는 드라마를 집필 중인데, 보좌관의 생활이 어떠한지 취재를 온 것이었다. 작가가 말해주는 줄거리를 듣다보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한다. 인터뷰가 끝나고 그 작가는 그에게 “글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길 건너면 드라마 작가 교육원이 있으니 거기에 가보라”고 했다. 그에게 드라마 작가를 추천해줬던 것은 바로 카이스트, 반올림 등을 집필한 김윤영 작가였다.

“호기심에 드라마 작가 교육원에 들어갔죠. 맨날 정치나 정책 등 복잡한 이야기만 하다가 사람들의 사랑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하고 듣다보니 저절로 힐링이 되었습니다. 작가가 되지 않아도 그저 재밌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좌관과 교육원을 병행하던 중에 덜컥 공모전에 입상하게 되었다. 정현민 작가는 이왕

한 번 시작한 것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승부를 걸어볼까 생각했다고 한다. 드라마 작가에 도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가 밀려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딱 2년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보좌관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었지만 아내는 그를 믿어주었고, 그렇게 그는 단편 드라마 <자유인 이회영>, 미니시리즈 <프리지던트> 등을 집필하며 데뷔를 하게 되었다.

운명과도 같았던 정도전과의 만남

보통 KBS의 대하드라마는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작가가 집필을 한다. 때문에 신인 작가인 정현민 작가를 발탁하는 것은 KBS로서는 큰 모험이었을 것이며, 그에게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대해 해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공부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일주일에 4일은 공부하고 3일은 대본을 썼다. 수백여 편의 사료와 논문을 옆에 두고 늘 확인하면서 대본을 썼다. 중반을 넘기면서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글 쓰는 작업이 수명과 맞바꾸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나도 작품을 쓰면서 깨달은 부분이지만 보좌관 시절의 경험이 없었다면 정도전과 같은 대하드라마를 집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양자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균형 감각이 많은 드라마 속 인물들을 정리하고 재창조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난 것 같습니다.”

그는 드라마 속 인물들을 그려내기 위해 감독, 배우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논했다. 특히 강예슬 배우가 연기한 '양지'라는 인물은 유일한 허구의 인물이었지만 착한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애정이 많이 갔던 인물이다. 그래서 '양지'라는 인물이 죽는 장면에서는 그는 거의 오열하

면서 대본을 썼다고 한다. 그 정도로 그는 극 속에 빠져들어 글을 써 내려갔다.

“모든 배우가 인상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동아대 동문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배우는 '이색'을 연기한 우리 대학교 회계학과 80학번 박지일 선배입니다. 많은 배우들이 역사 속 이색을 연기했지만 앞으로 박지일 선배를 능가하는 이색은 나오기 어려울 거라 자신합니다.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동아에서 참 스승을 만나다

정현민 작가는 방송계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아대 동문들과 종종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타지에서 생활하다보면 모교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반갑고, 남 같지 않은 정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시절 저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모교와는 애증의 관계였죠. 하지만 훌륭한 선배들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참스승이 동아대에 많았어요. 제가 동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김민남 교수님이라는 큰 스승을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정현민 작가는 대학시절 등록금을 내지 않고 군 휴학을 하는 바람에 미등록 재적의 위기에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김민남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찾아가는데, 그 때 김민남 교수는 전화를 해서 등록을 하루 유예하고, 부산은행 감천지점을 가서 대출을 위해 직접 보증도 서 주었다. 그리고 3년 내내 정현민 작가를 대신해 이자도 내주었다. 친구도 선배들도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였다고 한다.

“정도전 끝나고 난 뒤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오히려 제가 밥을 사려고 갔는데, 옛날에 어렵게 살던 제자가 생각나셨는지 당신께서 갈비탕 한

그릇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동아대를 오지 않았다면 그런 스승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교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내리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아대 출신에게 눈이 더 가고 그래요.”

데뷔 후 4년간 치열했던 집필 작업으로 인해 다음 작품을 준비하기까지는 휴식이 유일한 계획이라는 정현민 작가. 이번 작품이 뜨거웠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의 차기 작품을 곧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 '정도전'을 떠나보내고 그가 그려내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세계 속에서 모두가 함께 울고 웃게 되길 기대해 본다.



KBS 대하사극 '정도전' 포스터
'정도전'은 최고시청률 19.8%를 기록하며 대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땀과 열정으로 동아인의 자부심을 잇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동아대 재경동문회 회장)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 세계 최대 쇼핑몰 두바이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두바이 비즈니스 베이의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유보라 타워. 그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주로 수주공사에 치중한 것과 달리 유보라 타워는 반도건설이 현지 토지를 직접 매입해 건설, 분양까지 도맡아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다. 그 성공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달려온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우리 동아대학교의 재경동문회 회장을 맡았고, 올해도 연임해 재경동문회를 이끌고 있는 권홍사 회장을 만나보았다.



두바이 유보라 타워



많은 후배들이 권 회장님을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주택업계의 침체 속에서도 반도건설은 드물게 성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공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후배들이 저를 롤 모델로 삼는다고 하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반도건설은 지난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온 결과라

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은 늘어납니다. 여건이 어려워도 잘 만든 상품은 반드시 팔린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로케이션, 좋은 평면구조, 컬러 콘셉트의 삼위일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평면 혁신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권 회장님께서서는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원래는 동아대 건축학과 야간에 입학했어요.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과 주택, 도로 등에 대한 복구 열기 때문에 건축학과 경쟁률이 유독 높았죠. 2년제를 졸업하고 주간으로 편입해 1972년에 졸업했습니다. 그 시절은 가난에 시달리고, 찌들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막노동도 하고, 새벽에는 신문배달도 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후세에는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반도건설은 어떤 포부로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제일토건에 입사를 했어요.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가지니까 월급을 정말 적게 주는 거예요. 졸업 후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1975년 서른한 살의 나이에 반도건설을 창업했습니다. 말이 창업이지 구멍가게나 다름없었어요. 직원이라고 해야 후배와 사촌동생 세 명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때는 사람들이 '권 기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권 기사'가 짓는 집은 많이 팔렸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진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었죠.

권 회장님께서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 2012년부터 재경동문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재경동문회는 지난 1956년부터 모임을 시작해 현재 5천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장직에 그간 몇 번의 제의가 있었지만 고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 겨우 수락해서 2년의 임기를 끝냈고, 올해부터 다시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모교 동문회장으로 활동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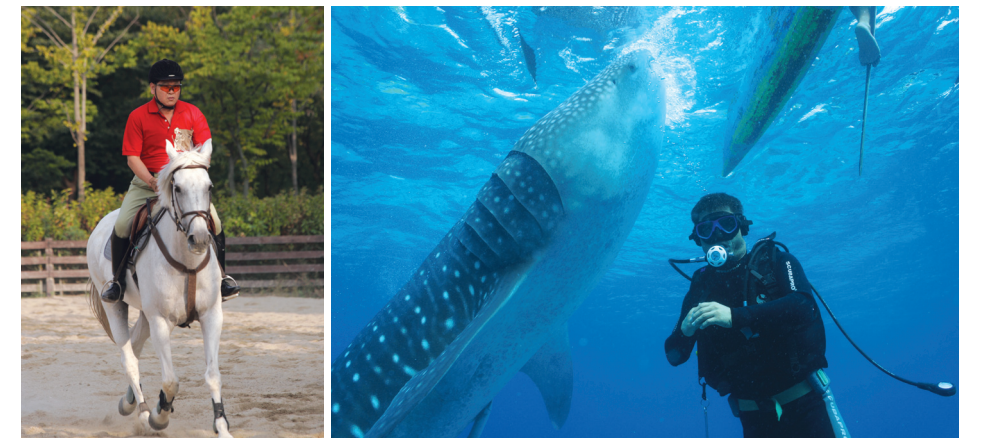
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에요. 18만 동문 중 재경동문회의 역할은 총동문회 못지않게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문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 맥이 점점 끊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때문에 동문 모두가 긍지를 갖고 구성원으로서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드는 것이 재경동문회장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재경동문회에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회장님께서 앞으로 재경동문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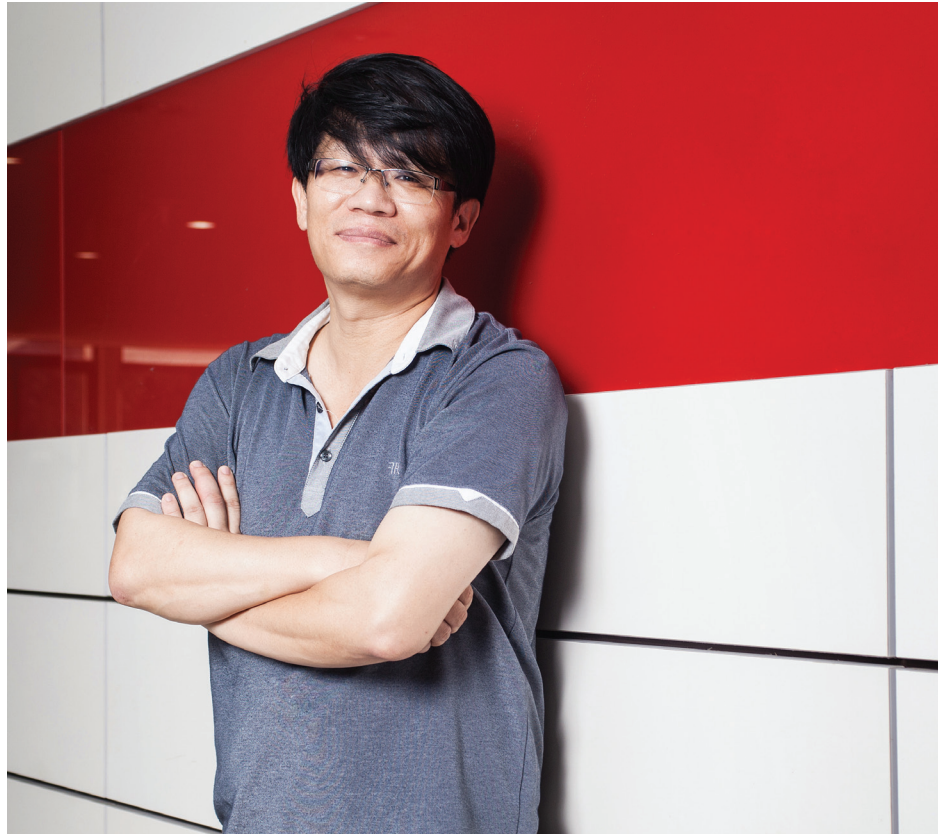
동문회는 졸업 후 단순한 친목을 하기 위해 참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또한 옛날같이 경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돕는거나, 장학금을 기부하기 위한 모임도 아니죠. 대학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의 절대적인 위상은 바로 동문회에 달려있습니다. 동문회 모임이 잘 되어야 하고, 동문회 회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문이자 재경동문회 회장으로서 권 회장님께서서는 모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동문회장으로서 임기 2년이란 시간 속에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제게 주어진 역할을 개척하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애써 외면하며 한길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우리가 걸어온 것처럼 똑같이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학도 글로벌 시대를 향한 차원 높은 교육이 절대 필요하며, 좋은 환경과 훌륭한 마인드와 실력을 갖춘 교수들을 많이 발탁하여 교육전환의 계기로 삼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세계대학 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너무 과한 욕심이겠죠. 그러나 이 사회에서 촉망받는 좋은 직장에서 리드하고, 존경받는 후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목표 지향적으로 꾸준히 양성되도록 학교에서 잘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권 회장은 평소 스킨스쿠버와 승마를 즐기며 겨울엔 스키를 즐기는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전자공학과 이기동 교수, 동양인 최초 국제액정학회 학회상 수상

NEWS 01

이기동 교수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이기동 교수가 동양인 최초로 국제액정학회(ILCS)에서 수여하는 'Mid-career Research Excellence Award'를 수상했다.

이 상은 액정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와 기술에 공헌한 과학자를 대상으로 ILCS가 2년마다 2명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연구경력이 10년에서 25년 사이의 과학자 중 액정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뛰어난 과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교

수는 지난 6월말 지난 6월 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국제액정학회(ILCC)에서 미국 켈트 주립대 액정인스티튜트의 조나단 셀링거(Jonathan Selinger) 교수와 함께 상을 수상했으며, 국내를 포함해 동양에서 이 상을 받는 것은 이 교수가 처음이다.

이기동 교수는 1990년 초반 한국에서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할 무렵, 액정 소자 연구개발에 참여해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이어 액정소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상전이 및 결점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액정분자 모델링을 개발한 이 교수는 대부분의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에 사용되는 수평 및 수직 스위칭 모드의 전기 광학적 특성 설계에도

큰 공헌을 했으며, 3차원 디스플레이를 위한 스윛처블 액정 렌즈와 빛 추적 기법과 같은 액정을 이용한 광학소자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기동 교수는 "그간의 연구 공로를 국제 학회에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국내 과학자의 연구 결과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교수는 교육부 주관의 BK21플러스 사업 중 하나인 '차세대 스마트 전자소자 핵심기술 사업팀'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 소재부품업체 등과도 디스플레이 소자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화학공학과 이정규 교수팀, 실리콘 기반 차세대 고용량 리튬이차전지 시스템 개발

NEWS 02

이정규 교수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이정규 교수팀이 실리콘 소재를 기반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고용량 리튬이차전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정규 교수팀은 이번에 개발한 '실리콘 기반 음극소재'와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선양국 교수팀이 개발한 'Ni 함량이 높은 고용량 양극소재'를 이용해 에너지밀도가 높고, 수천 번 충·방전이 가능한 리튬이차전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시스템은 고용량 실리콘 기반 음극소재와 양극소재를 사용해 리튬이차전지의 에너지밀도를 240~270Wh/kg으로 향상시켰으며, 이를 전기자동차에 적용할 경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리튬이차전지의 에너지밀도가 약 150Wh/kg에 주행거리는 160km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성과다.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핸드폰,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의 경량화 또는 1회 충전 시 사용 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나아가 발전소 부하 조절,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발전) 저장 등의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에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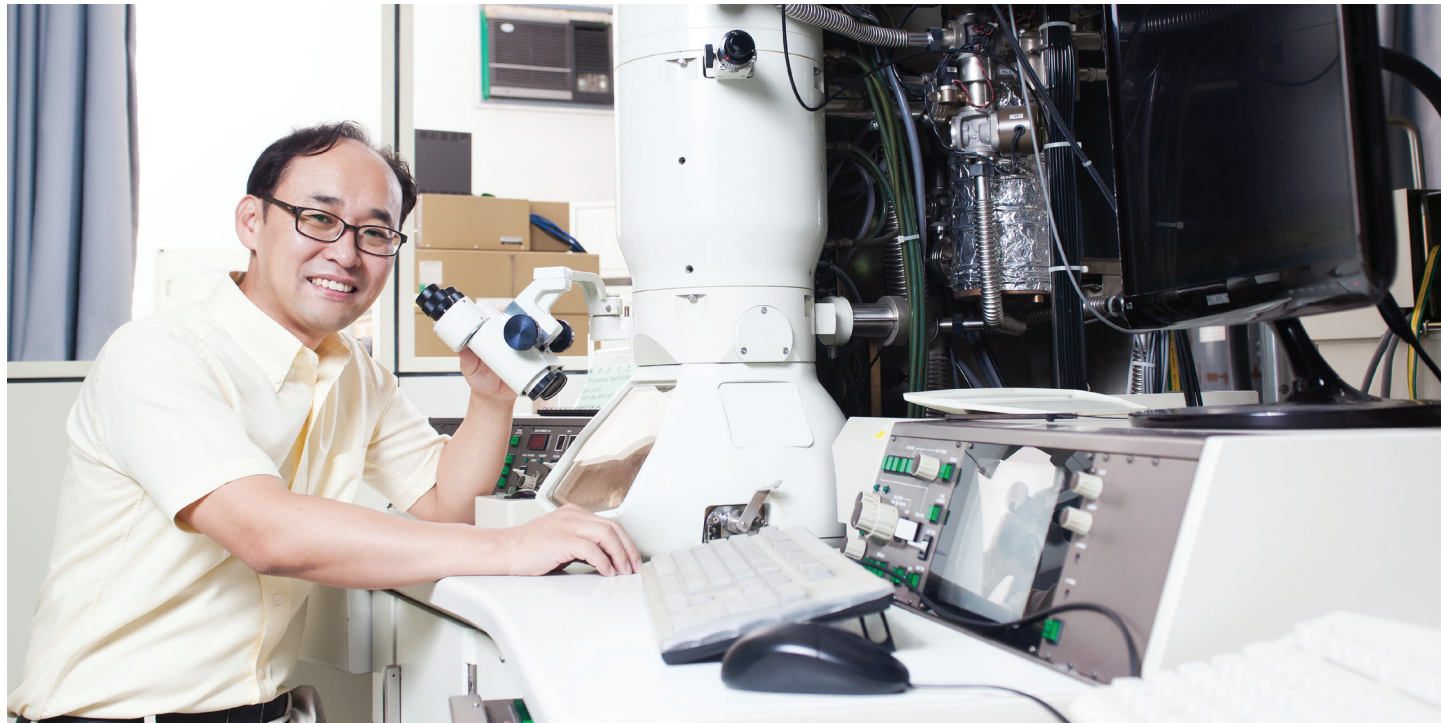
특히, 이정규 교수팀은 실리콘 소재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짧은 수명을 실리콘·탄소 나노복합체 내부에 소량의 그래핀을 균일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이차전지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이정규 교수는 "실리콘 소재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고용량 리튬이차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개발된 실리콘 소재의 대량제조를 위해 소재 제조공정 단순화와 최적화 연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화학 및 재료분야의 권위 학술지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리튬이차전지란?

1991년 일본의 소니사가 상용화해 대량생산을 실시한 이후 세계시장에서 매년 10% 이상 그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한 번 충전 후 일정시간 뒤 방전되면 버려야 했던 일차전지에 비해 충전이 가능하고, 가볍고 기전력이 커 관리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리튬이차전지 세계 생산량 1위지만,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시장지배력을 점차 넓히고 있어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신소재공학과 박현순 교수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논문 게재

NEWS 03

박현순 교수팀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박현순 교수팀의 논문이 지난 4월 13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Nature Nanotechnology, Impact factor 31.170)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게재된 논문은 '전자선 홀로그래피에 의한 스키르미온 격자의 3차원 구조 및 자속관찰'로, 300kV 전자현미경과 1000kV 초고압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현재 스펙트로닉스 분야의 응용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스키르미온(나노스케일의 자기 소용돌이)의 3차원 구조와 자속을 세계최초로 관찰한 결과물이다.

쉽게 말해 전자선 홀로그래피 기술을 사용해 원자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관찰한 것이다.

이 기술은 차세대 메모리로 각광받는 스핀 메모리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전자가 회전하는 스핀을 이용해 수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자석에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실생활에 있어 초저소비·초저손실 등의 고도 에너지 기능을 하는 신재료의 창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 연구는 박 교수가 전자현미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故 토노무라 아키라(Akira Tonomura) 선생(히타치제작소 소속), 응집물리학 분야에서 저명한 토클라 요시노리(Yoshinori Tokura) 선생(이화학연구소 및 동경대학 소속)과 함께 공동 진행한 결과다. 특히故 토노무라 아키라 선생은 극미(極微)의 세계의 불가사의한

물리현상을 보기 위해 '전자선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개발하여, 노벨상 후보로 손꼽던 실험 물리학자이다. 그는 원자를 직접 관찰한다는 큰 꿈의 실현을 위해 일본 연구비 지원 역사상 최대 규모인 5년간 60억 엔이 투입된 'First Project'를 수행했다. 박 교수는故 토노무라 아키라 선생의 제자로 그와 함께 일본 최첨단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 왔다.

박 교수는 "재미있는 거동들을 나노스케일로 직접 관찰하고 물리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논문에 담았다"며, "앞으로도 신소재 개발은 물론 물리적 현상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논문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의 5월호 표지논문으로도 선정되었다.

NEWS 04

김명식 교수
미술학과

미술학과 김명식 교수가 미국 뉴욕 첼시에서 미술학과 학생들과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Finding Identity'라는 주제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 뉴욕 첼시의 쿠하우스아트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는 동아대 교수와 미술학과 학생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번 전시는 동아대 김명식 교수를 비롯, 김정임 김현호 신상용 교수 등 4인의 교수와 박수호 이재현 등 4명의 학부생, 김민지 박소영 등 8명의 대학원생, 재미작가 서성욱 김희상 등 7명의 졸업생이 회화, 조각,

판화, 도조, 영상 등 24점을 선보여 성황을 이뤘다. 김 교수는 "학생들이 현대미술의 중심 뉴욕 첼시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알리고, 견문을 넓혀 보다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하게 되었다"며 "전시회도 성황을 이뤘고, 학생들의 작품이 현지작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전했다.

세계문화예술의 중심인 뉴욕에서 단일대학으로 전시회를 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여기에는 전시 기획자인 김명식 교수의 남다른 의지가 있었다. 지난 2004년 연구교수로 뉴욕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김 교수는 뉴욕의 미술 인프라를 직접 보고 느끼며, 이를 제자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빠르게 변하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현지 미술인들과

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기획된 전시는 2005년 라오드 갤러리에서 시작된 이래로 지난해는 롱아일랜드에서, 올해는 맨해튼에서 열게 됐다. 당시 전시에 참가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현재 현역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현대 미술 본고장에서 쌓아왔던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편,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이스트 사이드 스토리 10주년 기념전(6월 13일-7월 2일)'도 함께 진행했으며, 지난 7월 10일 열린 햄트 아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내년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 교수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전시라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동아대학 교의 뉴욕전시회를 후배교수들이 뒤를 이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술학과 김명식 교수, 학생들과 뉴욕서 작품전시회 가져



가슴이 시키면 도전하라

1년간의 칠레-콜롬비아-아르헨티나-브라질-우르과이-페루 등 남미 탐험 '2014 부산사랑 우수인재상' 수상

글 | 김정철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과)

지난 2012년 코오롱 오지탐사대원으로 선발되어 키르기스스탄 미답봉 탐사를 시작으로 2년간 전 세계의 자연 깊숙한 곳을 탐험해 온 김정철 군. 2013년 3월 아타카마 사막마라톤 출전을 계기로 칠레를 시작으로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르과이, 페루를 두루 돌며 1년간 남미를 경험하고 돌아왔다. 그가 기억하는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8개월간의 콜롬비아 자전거 여행

77일간 밤낮으로 극한의 환경을 뚫고 250km를 내달리는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동아는 지금 103호에 소개)을 마치고 축산 몸을 추스르기도 전, 노트북과 카메라를 현지에서 도난당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벌어진다. 카메라와 함께 사라진 사진까지 처음엔 많이 당황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상치 못한 일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여행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쿨하게 남미

여행의 첫 번째 여행지 콜롬비아 보고타에 자리를 잡았다. 남미는 나와 잘 맞았다. 나의 적극적인 면이 열정적인 남미사람들과 잘 어울려져 스페인어까지 배워가며 여행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한적하고 아름다운 콜롬비아 길이 기억에 남는다.

주요 여행지로는 콜롬비아 하면 유명한 커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커피마을(Chichina, Manizales, Salento)이 있다. 여기서 최상급의 커피를 무료로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기

01



로운 커피향이 가득해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절로 일기가 쓰고 싶어진다.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중 하나로 알려진 캐리비안해(Santa Marta, Cartagena, Isla de San Andres)가 유명하다. 특히 캐리비안에는 7가지 바다색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섬 산안드레스가 있는데, 귀국 전 나에 대한 보상으로 일주일간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또 한 번의 고비를 안겨준 아르헨티나의 아콩카구아 산

그해 11월에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남미 최고봉 아콩카구아 산(6,962m) 등정에 나섰다.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높은 아콩카구아는 매년 팀을 이뤄 많은 산악인들이 도전하지만 등반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이 있어, 무모하게도 나는 홀로 등정에 나섰다. 등반을 하며 모든 것을 혼자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먼저 장비와 식량을 올려놓고 다시 내려와 올라가는 식으로 등반을 이어갔다. 정상을 앞두고 동상에 걸려 고립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는데, 한국 등반대의 도움으로 발을 녹이고 등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다.

아르헨티나(정확히 아르헨티나쪽 파타고니아)에서는 피츠로이와 모레노 빙하를 본 게 기억에 남는다. 태초의 자연을 그대로 볼 수 있어 트레킹이나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장소'라 불리는 곳이다. 기회가 있다면 꼭 방문해 보길 권한다.

이 외에도 우루과이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을인 콜로니아, 남미여행의 로망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TV 예능 '꽃보다 청춘'에 소개된 페루 마추픽추와 엄청난 모기와 벌레와 싸워야

했던 아마존 탐험 등 소개 하고 싶은 곳은 많지만 제한된 페이지에 다 소개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더 상세한 내용은 내 블로그(<http://blog.naver.com/r1awjdcj87>)에 업데이트 중이며, 책으로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을 알려주는 여행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 경비를 마련한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다. 대부분의 여행 경비는 공사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했다. 그중 사막마라톤을 준비할 때는 서울에 있는 협찬사를 찾아가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해 마무트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현지에서 배운 스페인어로 한국인 관광객과 직장인을 위해 가이드와 통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남미에 있을 때도 신한은행 여행수기 공모전에 응모해 2등에 당선되는 등 여행 경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여행을 통해 겪은 이런 일련의 과정은 글로 표현 할 수 없는 많은 가르침과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세상을 알려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망설인다. 그러나 용기만 있으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가슴이 시키면 도전하라.

김정철

1987년 생으로 2009년 미국서부 횡단을 시작으로 인도북부 라다크, 스리나가르 탐사, 키르기스스탄 악수산군의 미답봉 등 오지를 탐험했으며, 아타카마 사막마라톤을 완주하고 남미 최고봉인 아콩카구아 단독등정, 아마존을 탐험하는 등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 대한사이클연맹에서 주최한 Tour De Korea 전 구간을 출전하고, 진안 그랑폰도 대회 120km부문 11위를 차지했으며,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온 대표 건강 동아인이다. 이에 김정철 군은 남다른 도전정신으로 최근 제 8회 부산사랑 우수인재상 수상을 수상했다.



01 아르헨티나 아콩카구아
02 페루 마추픽추
03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코파카바나 해변
04 파타고니아 토레스델파이네

김태훈 선수의 금빛 발차기, 아시아를 강타하다

2014 인천아시안 게임 태권도 남자 54kg급 금메달
김 선수 “긴장감 떨쳐내고 좋은 결과 얻어 너무나 기뻐”

01



태권도학과 김태훈 선수가 금빛 발차기로 아시아 정상을 차지했다. 동아대 태권도학과 2학년 재학 중인 김태훈 선수가 지난 10월 3일, 강화도 고인돌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 게임' 태권도 남자 54kg급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김 선수는 준결승까지 세 경기 모두 '점수 차 승리(2라운드까지 12점차 이상 승리)'를 선보이며, 결승에 안착, 지난 8월 난징유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대만의 황위런 선수를 만나 결승전을 치렀다. 1라운드 초반, 두 선수는 팽팽한 경기를 펼치는 듯 했지만 김 선수가 37초에 발차기 공격을 성공 시켜 1점을 획득, 잇달아 점수를 얻어 3-0으로 마무리 했다. 김 선수는 2라운드에서 발차기 공격 등을 성공시켜 7-0으로 우세한 경기를 이어갔으며, 최종 3라운드에서 안면공격 등을 성공시켜, 결국 14-3으로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첫 번째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금메

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지난해 제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14 세계태권도그랑프리 시리즈(경량급·58kg)'에서도 잇달아 우승을 차지했던 김태훈은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세계 정상급의 기량을 과시했다.

김 선수는 "내가 우승해야 이번 대회 한국 목표였던 최소 금 6개를 달성할 수 있어 긴장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아시안게임을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긴장감을 떨쳐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 너무나 기쁘다"고 전했다.

남자부에서 가장 낮은 '핀급'이라고도 하는 체급에서 183cm의 월등한 신체조건에 강한 체력과 유연성, 빠른 발차기를 가지고 있는 김태훈 선수는 2016년 리우 올림픽을 겨냥하고 있다. 여기서 금메달을 따내 한국 태권도 최초의 경량급 '그랜드슬램'을 기대해본다.

동아대학교가 대학 최초 동아리 재능기부 봉사단을 발족했다. 동아대학교 학생복지과와 동아리연합회는 지난 6월 20일, 승학캠퍼스 청춘홀에서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동아 재능기부 봉사단'(단장 이해우, 동아대 학생·취업지원처장) 발대식을 가졌다.

학생들이 재능기부 봉사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동아 재능기부 봉사단'은 현재 10여 개의 동아리가 함께 하고 있다. 변근석(전자공학과 4) 동아리연합회장은 "학교성과와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최근 대학 내 동아리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며, "이에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 재능기부 봉사단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동아 재능기부 봉사단은 소외계층, 청소년, 외국인 및 관광객 등에게 △공연 △전

시 △문화강좌 등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동아재능기부봉사단(단장 이해우, 동아대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지난 8월 29일 오후 1시 동아대 승학캠퍼스 청춘홀에서 뉴질랜드, 러시아, 미얀마, 캐나다, 터키 등 총 11개국 청년들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 및 체험활동을 선보여 화제다. 동아재능기부봉사단은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동아대 국제교류과의 요청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 외국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풍물, 미술, 댄스, 태권도, 검도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동아대 응원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소현지(금융학과 2) 학생은 "이날 체험활동을 통해 댄스를 배운 외국인 친구와 함께 무대를 서게 됐다"며, "외국인 친구와 함께 소통하고 체험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대학 최초 동아리 재능기부 봉사단 발족

지난 6월 20일, 승학캠퍼스 청춘홀서 '동아 재능기부 봉사단' 발대식 박상갑 처장 "재능기부라는 새로운 창구로 봉사활동의 새로운 길을 열 것"



02



03

금상 2팀, 장려상 1팀 선정되는 쾌거 스마트그리드·에너지 절약 부문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

동아대 학생들, 대한전기학회 '제6회 그린에너지 경진대회'서 대거 수상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제6회 그린에너지 경진대회'에서 대거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7월 17일 용평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총 3팀이 참가했으며,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절약 부문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금상 2팀, 장려상 1팀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금상을 수상한 스마트그리드(전기공학과 4 김상인·김신·박동민, 전자공학과 4 탁희제,

컴퓨터공학과 4 손민식)은 스마트 e-Meter를 이용해 전력을 측정, 스마트폰과 연계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룸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는 융·복합 학과로 구성된 동아대 LINC 사업단(단장 이진우)의 스마트그리드 특성화 연계전공의 산학연계 실무형 수업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또한 램다팀(전기공학과 3 곡진혁·김성운·김인우·이석화·장창일·정일문·정진하·차상학)은 기존 CVT의 기계적인 구조를 개선한 O.G(Orange Gear)를 도입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장려상을 받은 테슬라팀(전기공학과 3 김성운·김승진·김진영·박근호 전기공학과 4 안현모)은 Solar Cell 및 센서를 이용한 전력절약 가로등 시스템을 제안했다. 한편, '제6회 그린에너지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대한전기학회 2014년도 제45회 하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열렸다.

동아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장한권(27, 김민정(24), 오찬미(23) 학생이 최근 정림학생건축상에서 작품 '안토니오, 죽기로 결심하다'로 대상을 수상했다. 정림학생건축상 공모전은 지난해 가을 첫 참가신청을 시작으로 수백여 팀이 참여한 가운데 약 280팀이 작품을 제출했다.

이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29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에서 12팀만이 최종발표 기회를 잡은 가운데, 동아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5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응모자 본인 혹은 직접 접촉이 가능한 대상 1인을 건축주로 선정, 그 대상을 위한 공간을 60㎡의 체적 내에 10개의 물리적 요소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공간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장한권, 김민정, 오찬미 학생은 '자살'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철학적 사고가 담긴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작품 '안토니오, 죽기로 결심하다'는 '삶이

소중한 것이며, 지속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 속에 '자살'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실존인물에게 제시해 그 인물이 느끼는 극한의 개인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장한권 학생은 "다소 어두운 주제이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며, "방학동안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김태철 교수님과 김병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김민정 학생은 "다소 자극적인 주제로 공모전에 참여했지만, 작품의 방향이 확실해서 끝까지 작업을 할 수 있었다"며, "수고한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찬미 학생은 "첫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특별한 주제였기에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함께한 팀원들과 교수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건축학과생, 정림학생건축상 대상 수상

장한권·김민정·오찬미 학생... 작품명 '안토니오, 죽기로 결심하다' "다소 어두운 주제,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

04



동아대학교 병원 소식

의료시장의 개방이라는 변화의 큰 물결에도 흔들림 없이 대처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 신뢰·봉사·인간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0년 3월 개원한 이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시설의 확충과 의료장비의 현대화, 최신 의학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동아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공로상 수상

광역치매센터 등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 인정



병원장 김상범 교수

동아대병원은 그동안 부산광역치매센터와 부산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통해 노인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역내

동아대병원이 '2014 부산국제실버엑스포' 행사 기간 중 어르신의 질병 퇴치와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

부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보건의료 소 및 복지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영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특히, 동아대병원 광역치매센터는 '부산시민의 건강한 뇌를 통한 행복한 노후'라는 비전과 'Smart Aging, Dynamic Busan'을 슬로건으로, 부산지역 치매의 치료·돌봄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중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보급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뇨발센터(Diabetic Foot Center) 개소

당뇨병성 족부질환 치료에 효과적인진료시스템 구축



센터장 이명진 교수 (정형외과)

정형외과 이명진교수가 센터장을 맡은 당뇨발센터(Foot Center)는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감염내과, 성형외과, 혈관외과, 신장내과, 안과, 신경과 등 다양한 진료과들의 협진과 검사 및 진

료 6시간이내에 가능한 One Stop 진료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특히 당뇨병성 족부질환 치료에 획기적으로 개선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다.

한편, 비만과 고령화에 의해 당뇨병 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당뇨합병증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시점에서, 국내 당뇨환자중 약 15%가 앓고 있는 당뇨병성 족부질환은 당뇨병 합병증중 입원사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비외상성 사지절단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동아대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효과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당뇨발센터(Diabetic Foot Center)를 개소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선정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들에 대한 집중치료로 최상의 의료혜택 제공

동아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아대병원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5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장비 관련 예산 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광역단위 지역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최첨단 장비 구비, 최신의 진료 시설 구축,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전문 분야 교수진으로 구성된 집중 치료팀 운영, 전문 간호 인력 양성, 24시간 전문 진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란 미숙아와 선천 기형을 포함한 선천성 질환 등으로 집중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신생아를 위한 신생아용 중환자실이다.

고령 임신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37주 미만의 미숙아 및 2.5kg미만 저체중출생아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운영 비용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역별 격차도 큰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병원에 병상 추가 확충 예산을 지원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치매센터 2014 부산국제실버엑스포 메인기관 참여 부산시민의 치매인식개선과 예방에 큰 역할 담당



동아대병원 광역치매센터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여 개최한 '2014년 부산국제실버엑스포'에 '치매케어특별관' 메인기관으로 참여,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부산광역시민의 치매인식개선과 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광역치매센터는 행사기간 동안 인지훈련 프로그램 실버로봇(실버)과 스마트 하모니 등 다양한 치매관련 장비를 선보였으며, '내시경만 하지 말고 뇌시경도 하세요'라는 참신한 슬로건을 내세우며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표로 부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스마트 테블릿을 활용한 치매조기검진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동아대병원 부산·울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한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반복적 뇌졸중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등 치매위험인자를 조절하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검진서비스(골밀도검사, 미각검사, 금연체 등)를 제공하였다.

또한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련 전문가들의 치매에 대한 입장을 모으고, 치매 환자 케어의 실태를 파악하여 치매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하여 6월 27일 '부산광역시 치매환자 케어의 실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치매에 관한 약물치료, 작업치료, 예방운동 등 실질적인 케어에 관한 접근 뿐만 아니라 치매 특별등급 도입과 치매환자 실종문제, 환자 부양자의 부담과 경감대책 등 정책적인 접근까지 동시에 이루어져 치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전경

동아대, '인재 배출 대학' 지방사립대 부문 전국 2위

한국경제신문, 500대 기업인사 담당자 대상...인문·상경계열 2위, 이공계열 4위

동아대학교가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사립대 부문 전계열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화제다.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캠퍼스 집안조이가 500대 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헤드헌터들을 대상으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은 어디입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동아대가 지방사립대 중 인문계열 2위, 상경계열 2위, 이공계열 4위를 차지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동아대와 부산대가 전계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주요 기업에서 채용을 결정하는 인사담당자들이 응답한 결과이기에 동아대 졸업생들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동아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서 취업률 53.5%를 기록, 부산·울산·경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자 3천 명 이상) 중 취업률 2위, 전국 14위를 차지한 바 있다.

동아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문 60명 당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9개 지역 당선

지난 6월 4일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아대학교 동문 60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와 동아대 총동문회는 기초자치단체장 13명, 시·도 의회의원 19명, 구·시·군 의회의원 24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1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아대 출신 기초자치단체장에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 김은숙 △서구 박극제 △부산진구 하계열 △동래구 전광우 △사하구 이경훈 △연제구 이위준 △수영구 박현욱 △사상구 송숙희 △강서구 노기태 등 9명이 당선됐으며, 부산 외 지역에서는 서울지역 △동대문구 유덕열, 경남 지역 △거제시 권민호 △남해군 박영일, 경북지역 △울릉군 최수일 등 4명이 당선됐다.

임동락 교수 작품, 네덜란드 에드시 도심에 설치

작품명 '포인트-성장(Point-Growth)'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임동락 교수와 네덜란드 동부 에드(Ede)시 도심 중앙광장에 설치된 '포인트-성장(Point-Growth)'.

미술학과 임동락 교수의 작품 '포인트-성장(Point-Growth)'이 네덜란드 동부 에드(Ede)시 도심 중앙광장에 설치됐다.

에드시에는 62에이커의 조각공원과 반 고흐와 피카소, 몬드리안 등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크릴러 밀러 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이번 임 교수의 작품 설치 의미는 남다르다.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측은 "이번 임 교수님의 작품설치는 HVA 컬처 펀드가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에 설치된 임 교수의 작품을 보고, 높이 4~5m 크기의 작품을 네덜란드 도심에 세우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제막식은 지난 9월 23일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에 열렸다.

허남식 前 부산시장, 석좌교수 임용

9월 1일부터 국제전문대학원 국제중재학과 학생들 가르쳐



허남식(왼쪽) 前 부산시장이 9월 1일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중재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된 후, 방정형(오른쪽) 동아학숙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남식 前 부산시장이 지난 9월 1일 국제전문대학원 국제중재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돼 내년 8월 말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

허 前 부산시장은 경남 마산고와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경성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허 前 부산시장은 부산시 영도구청장을 거쳐 지난 2004년 보궐선거를 통해 부산광역시장에 당선, 내리 3선을 역임하면서 강서 그린벨트 1000만 평 해제와 시민공원 조성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한편, 동아대는 내년 8월 말까지 조무제 前 대법관과 이장호 前 BS금융지주 회장, 박관용 前 국회의원 등 총 3명을 석좌교수로 재임용, 허남식 前 부산시장을 포함해 총 4명을 석좌교수로 초빙했다.

동아대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환경부 지정 최우수센터 선정

국고보조금 2,100만 원 증액...총 사업비 3억 6,400만 원 지원
중금속노출 부분 환경보건센터 지정 후, 사업 첫 해만에 큰 성과 거둬



동아대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주최로 지난 2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세미나실에서 국외전문가초청강연 세미나가 열린 후, 홍영습(왼쪽에서 여덟 번째) 센터장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영습)가 최근 환경부 지정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환경성질환 연구사업 달성도와 환경성 질환자 모니터링 및 DB 구축, 예산집행의 적정성, 환경보건 홍보, 센터운영의 적정성 등 각 항목을 평가해 최우수센터로 지정했다.

동아대는 평가 항목별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센터로 선정됐으며, 이에 국고보조금 2,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2014년도 총 사업비 3억 6,4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이번 선정은 2012년 10월 중금속노출 부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후, 사업 첫 해 만에 거둔 성과라 의미하는 바가 크다.

홍영습 센터장은 "우리 센터의 연구역량과 사업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수님들의 독창적이고 탁월한 연구능력과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동아대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는 중금속 유발질환의 기전, 환자 및 고위험군 치료와 관리 체계 구축 및 예방관리 체계 마련을 목표로 중금속 유발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아대, 한국국제협력단 국별연수사업 선정

‘라오스 지역개발 정책 제도화 연수’...1억여 원 지원 받아



동아대학교가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별연수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공모에서 동아대는 ‘라오스 지역개발 정책 제도화 연수’ 사업을 기획해 제안했으며,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라오스 농림청 및 지역개발 정책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역량 개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아대가 제안한 이 사업은 라오스의 지역개발 정책 및 제도화 분야와 관련해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연수 참가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라오스 지역개발정책과 제도운영의 개선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동아대는 1억여 원을 지원받

아 국제협력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타진할 전망이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박홍석 부총장은 "이번 사업선정은 교수님과 직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 사업으로 동아대학교가 국제화 부문의 진일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의 국별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제도 구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동아대, ‘공공외교 프로젝트 사업’ 『한류(韩 留)』잡지 발간

외교부 지원 받아 추이슈에메이(崔雪梅) 교수와 국제교류원, 공자아카데미 공동 집필문
유학생들의 한국유학체험담 및 취업성공담 등 생생하게 전달



외교부 ‘공공외교 프로젝트 사업’ 『한류』잡지 표지

동아대학교가 지난 6월 24일 외교부 ‘공공외교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인 『한류』잡지를 발간했다.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이 책은 동아대 국제관광학과 추이슈에메이 교수와 국제교류원, 공자아카데미가 공동 집필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추이슈에메이 교수가 외교부 공공외교 외국인학술그룹 명예사절단에 위촉되면서 진행됐다.

총 6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지 유학생들의 한국유학체험담과 취업성공담 등을 담아 한국의 문화와 생활상을 보다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기고를 비롯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역사, 부산의 유래 등을 수록하고 있어 한국을 좀 더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이 책자는 중국, 대만, 마카오 등 60여 개 동아대 자매결연협정대학과 공공기관에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추이슈에메이 교수는 "『한류』는 유학생들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책으로 한국유학생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며 "책이 성공적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예창작학과 신진 교수, 제8회 낙동강문학상 수상

지난 9월 19일 부산강서문화원 대강당... 수상 대표작 ‘강-땅파기’
신 교수 “산이든 도심이든 문학은 삶의 진정이요, 내 것인 동시에 남과 나누기 위한 표현”



동아대 문예창작학과 신진 교수

문예창작학과 신진 교수가 지난 9월 19일 부산강서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낙동강문학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부산강서문인협회가 주관하는 낙동강문학상은 낙동강의 유일한 흐름을 따라 영위해 온 민중의 애환서린 삶을 깊이 있게 천착한 훌륭한 작가를 발굴하여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 우수한 문학작품을 함께 즐기고 풍요로운 예술의 맛을 향유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신진 교수의 이번 수상 대표작은 ‘강-땅파기’로, 김재홍 경희대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도도한 몸짓이면서도 유순한 흐름의 낙동강! 그 낙동강의 진면목을 신진 시인에게서 보았다”며, “낙동강 문학상 흐름에 큰 물길로 동참하신 우의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진 교수는 “산이든 도심이든 문학은 삶의 진정이요, 내 것인 동시에 남과 나누기 위한 표현이다”며, “나의 삶이자 나를 생태주의 시 쓰기로 이끌기도 한 낙동강, 어떤 글을 쓰든 나는 서낙동강, 그가 생사의 기로에서 보여주던 붉고도 푸른 풍경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제21회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동아대학교 박종익(패션디자인학과 4) 학생의 작품.

패션디자인과 제21회 부산패션디자인 경진대회서 대거 수상

대상에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 박종익 학생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들이 지난 9월 25일 벅스코에서 열린 '제21회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에서 대거 수상해 화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370여 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총 4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그 결과,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종익 학생이 대상(국무총리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김연주·정설빔 학생은 동상(부산울산중소기업장장상, 상공회의소회장상)을, 박민지 학생은 특별상(브랜드상)을 수상했으며, 권은화·김하영·안재은·조현정 학생은 특선을 받았다.

박종익 학생은 "본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뻐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제가 좋아하는 패턴 분야에 대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앞으로 패션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는 21세기 패션산업을 이끌어갈 유망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패션디자인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패션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시켜 문화발전과 업계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주역인 김태훈(왼쪽에서 세 번째), 남기웅(오른쪽에서 세 번째) 선수가 7일 동아대 권오창(가운데) 총장을 내방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기웅 선수, '2014 인천 아시안게임'서 수영 기대주로 우뚝

남자수영 계영 400m, 800m 출전...동메달 획득 남 선수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동아대학교 수영부 남기웅(21) 선수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수영 기대주로 우뚝 솟았다. 남 선수는 남자수영 계영 400m와 800m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9월 22일 인천 박태환수영장에서 남자 계영 800m가 열렸다. 이날에는 남기웅(동아대)-양준혁(서울대)-정정수(서귀포시청)-박태환 선수가 차례로 입수한 가운데, 남 선수가 1분51초78로 200m 구간 터치패드를 찍은 후, 양 선수가 순위를 끌어올려 동메달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다. 첫 출발이라는 부담감에 다소 부진한 기록을 남긴 남 선수는 동메달 소식에도 마냥 좌충우돌을 표했다.

이틀 후인, 24일에는 남자 계영 400m가 열렸다. 안종택 수영 대표팀 감독의 전략으로 남 선수는 김성겸-양준혁에 이어 세 번째 주자로 나섰다. 심기일전한 남 선수는 200~300m 구간을 48초 93으로 통과, 홍콩 선수를 제치고 4위에 머물러 있던 순위를 3위로 끌어 올려 마지막 주자인 박태환 선수에게 넘겨주었다. 이날 남 선수의 첫 50m 구간 속도는 22초 97로, 결승전에 나선 8개 팀 3번 주자 가운데 가장 빨랐다.

남 선수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아직 중국과 일본 선수들에 견줘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작은 소망을 밝혔다.

행복한 기부로 함께 만드는 동아 동아대학교 2014 발전기금 연보



"기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에서 말하는 '적선지가 필유여경

(積善之家 必有餘慶,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라는 뜻)'이죠.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김백영 변호사 (46-47p 인터뷰 중)



모교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파

동문과 지역 기업인이 함께 참여해 조성된 동아대학교 발전기금은 많고 적음을 떠나 동아대학교를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교육에 투자된 기금은 젊은 동아인들이 뜻 깊은 지적 모험을 하고, 학문의 상야담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된다. 신정택 (주)세운철강 회장은 모교 발전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자처하며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동아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해왔다. 극대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현대사회 기업문화 가운데서 신 회장의 기부는 특별한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신 회장의 기부에는 모교에 대한 무한사랑이 담겨 있다.

“그동안 모교인 동아대학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일들은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모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을 찾아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 오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동문인 신 회장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동아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동문 출신의 지역 중견 기업인으로서 소통과 나눔의 모범을 보였다.

인재 육성에 미래가 달렸다

신정택 회장은 부산의 중견 기업을 일구어 온 경영자로서, 부산 경제계 원로로서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다. 특히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며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에도 관심이 많았다. 신 회장은 그동안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신 회

장의 모교의 인재육성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경제의 역군으로 성장하는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대학은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해 지역 기업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이 살고, 기업이 살 수 있는 상생(相生)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동아대학교는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의 인재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은 지역 경제에 있어 인력부족 현상 및 경제침체 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의 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의 선순환을 위해 동아대학교는 석당인재학부 개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뤄왔다. 신 회장은 이러한 노력에 더해 모교 출신의 지역 기업인들이 모교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동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선순환

그는 최근 이장호 전 BS금융그룹 회장, 송규정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아이스버킷 챌린지에도 동참하며 기부의 릴레이를 이어갔다. 그에게 있어 기부란 어떤 의미일까?

“지역의 기업인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모교의 동문들이 학교의 발전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사회가 바르고 따뜻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시

대입이다. 각박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기부)을 특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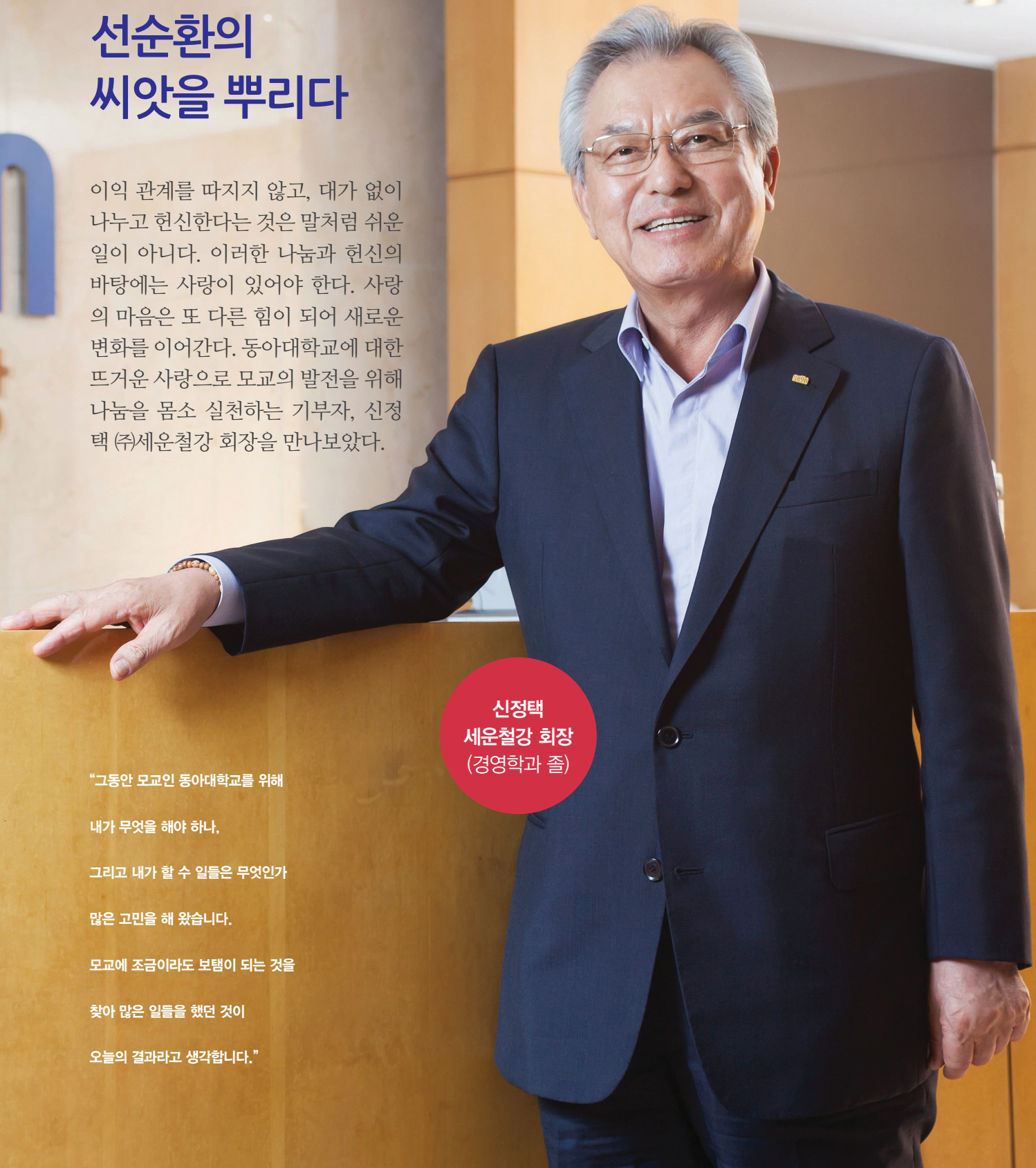
‘가이오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기부는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부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역설이다. 이러한 역설에서 보듯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기부는 나눈 것 이상의 소득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기부는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주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선물한다. 모교를 위한 신 회장의 헌신과 나눔은 동아대학교를 세계 속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가 앞서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 많은 동아인들이 나눔과 헌신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세운철강은?

부산의 대표적인 중견기업을 말할 때 빼놓지 않는 기업이 바로 세운철강이다. 세운철강은 신정택 회장이 36년 동안 일구어온 기업으로 자동차, 가전, 발전설비, 조선산업에 냉연철강 제품을 공급하는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창립 34주년 만에 냉연 철강 판매량 1000만 톤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1000만 톤의 철강은 지구 둘 35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며 중형차 1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1978년 설립 이래로 오일쇼크와, IMF, 금융 위기 등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세운철강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지역과 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의 씨앗을 뿌리다

이익 관계를 따지지 않고, 대가 없이 나누고 헌신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나눔과 헌신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의 마음은 또 다른 힘이 되어 새로운 변화를 이어간다. 동아대학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기부자, 신정택 (주)세운철강 회장을 만나보았다.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경영학과 졸)

“그동안 모교인 동아대학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일들은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모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을 찾아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 오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품위는 나눔으로 완성된다

기부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의 하나이다. 어떤 이는 선진국의 척도를 그 사회의 구성원이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는지 여부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만큼 기부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 화두에 대해 '실천'이라는 답을 제시하는 이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 삼덕의 대표변호사인 김백영 변호사. 그가 들려주는 기부와 나눔의 철학을 한 번 들어보자.

김백영 법무법인 삼덕 대표변호사 (법학과 75학번)

“기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에서 말하는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라는 뜻) 이죠.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교에 대한 고마움, 기부금 1억원 넘어

지난 5월 25일, 동아대학교 고시준비반 지도료 출신의 모임 '지우회'의 회원들이 석당박물관에 모여 모교에 발전기금 1,200만 원을 기부했다. 지우회는 지도료를 통해 배출된 법조인들이 모여 만든 모임으로 부산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점심 오찬 모임을 갖는다. 지우회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가 바로 김백영 변호사다.

“우리 동아대학교 법대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지우회 회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부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 모교 전체 차원에서 기부금을 전달했다는 것이 기존의 기부와는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는 1975년 동아대학교 법학과 야간부에 입학했다.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했던 힘든 시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저녁에 수업을 마치고 구덕캠퍼스를 내려갈 때면 가슴가득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스승은 제자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제자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김 변호사는 지도료에서 공부할 당시 학교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갚아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그가 개인적으로 학교에 기부한 금액만 1억 원이 넘는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나누는 삶

김백영 변호사 하면 부산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기도 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

금회가 지난 2007년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만든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개인 1억 원 이상, 법인 30억 원 이상을 기부한 법인(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 변호사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은 기업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부산에는 40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기부'란 어떤 의미일까?

“기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에서 말하는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라는 뜻)이죠.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 김 변호사의 인생에서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6.25에 참전하셨고, 육군 중위로 예편하셨어요. 예편 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와서 직장생활, 가게운영, 노동일 등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항상 정직함과 정의에 합당한 생활을 해오셨어요. 아버지의 삶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남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원적을 어기지 않겠다'는 주의였다. 중위로 예편했지만 취직 청탁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남들에게 뭘 나눠줄 처지가 아니었지만, 막걸리 한 잔도 주워와 나눠 마셨다. 그것이 아버지의 정직이었고, 정의였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아 '기부 인생'을 시작했다고 한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

한편 김백영 변호사는 동아대학교 로스쿨의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새로운 사회로의 진출을 앞두고 방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많은 후학들을 지켜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

“청년들은 항상 고뇌하고 방황했습니다. 갑자기 오늘 이 시대에만 아파했던 것이 아니지요. 청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뇌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인간은 삶이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보하면 자신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능력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성공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한다. 욕망을 극대화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허탈과 허무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때문에 자신의 삶에 더욱 더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다’고 지적을 했어요. 학생들도, 학부모도 힘들고, 학교기관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교육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모교에서도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방향으로 뭔가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만 동문 중 한명으로서, 그리고 동아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스승으로서 김 변호사의 모교에 대한 사랑은 학교 발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그가 단순한 Donor(기부자)가 아니라 Honor(존경받는 사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감동, 육경장학회

일방적인 나눔이 아닌 '주고받고 나누는 것'으로 기부 의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단순한 친목도모를 넘어서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육경장학회 회원들이다. 육경장학회가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곳이라 말하는 2014년 육경장학회 이병희(명지대학교 주유소 대표) 간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병희
육경장학회 간사
(AMP4071)



“ 처음 가진 장학금 전달식에서 받은 감동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

시작, 의미 있는 일에 뜻을 모은 사람들

육경장학회는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 40기 수료생들로 이뤄진 장학회이다. 강영수, 김형준, 백화진, 윤정기, 이병희 동문이 학업 성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2006년에 발족했다. 이후 김광윤, 이성우, 정연삼, 진용현 동문이 의미 있는 일에 뜻을 함께 해 현재 9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육경장학회 초기 멤버인 5명은 최고경영자과정 40기 동인팀원들이다. 이 중 윤정기 회원이 장학회 설립을 제안했고, 다른 회원들도 그의 뜻에 힘을 모으기로 했고, 그렇게 육경장학회는 설립되었다. 설립할 당시 주변 반응에 대해서 묻자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장학회의 좋은 취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크지도 않고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회원들의 의지와 협조로 이뤄지고 있으며 매달 1회씩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기 모임을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감동, 잊을 수 없는 장학금 전달

“설립 후, 처음 가진 장학금 전달식에서 받은 감동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때 받은 감동을 잊을 수 없어 장학금 전달식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이병희 간사의 표정에서 나눔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동아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게 된 인연으로 장학금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고 지난 2007년, 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모두 5천 500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이후 대외협력처의 도움으로 장학금 학생 선발에서 수여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2013년 2월 18일 동아대학교와 10년간 총 1억 원 장학기금 기부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매학기 5~10명의 재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도 모임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교류도 이어 나가고 있다.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열정에 감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육경장학회 회원들은 10년을 유지하는 것이 기존 목표였지만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나눔, 육경장학회와 동아대학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병희 간사는 말한다. “나눔은 나눔으로써 커지는 법입니다. 끈끈한 동문네트워크가 강점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내면적 지식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육경장학회를 통해 동아대학교 인재 육성에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이병희 육경장학회 간사는 임기 2년 동안 회원의 화합과 동아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꿈을 꾸는 학생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육경장학회의 변함없는 활동과 육경장학생들이 힘찬 도약을 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지난 9월,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회의실에서 '2014학년도 육경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열린 후, 육경장학회 회원들과 장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윤원 의학박사
(의학과 85학번)

실천하는 동아인, 동아인의 자부심을 이어가다

‘나눔’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만났다. 바로 동아대학교 의대 1회 졸업생인 김윤원 동문이다. 현재 부산 덕천동에서 개인의를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본인의 기부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을 쑥스러워 했다. “기부 당시엔 제 아내와 정신의학과 의국만 알기로 했었는데, 기부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에 알려지고 총장님께서도 정식으로 약정서 전달식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또한 모 일간지에 관련 기사가 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과하게 받았습니다.”

기부에 대해 마냥 숨기지만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학교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인터뷰에 응했다는 김윤옥 동문. 그를 만나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의사로서의
제가 있기까지,
동아가 함께 했습니다.
”

은사의 내리사랑, 후배들에게 돌려주다

김윤원 동문과 동아의 인연은 1985년부터 시작되었다. 동아대학교 의예과 85학번으로 입학한 후 석·박사 과정까지 본교에서 마친 그는 인생 중 가장 빛났던 청춘시기를 동아와 함께했다.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기까지 모교의 도움이 컸습니다. 대학시절, 의과대학이 적성에 맞지 않아 방향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학과 선·후배들이 다독여 주었고, 정신과 수련 과정 동안에는 스승님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윤원 동문을 얘기하면서 동아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실의 최병무 교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김윤원 동문에게 있어서 스승 그 이상의 존재이다. 형님이자 아버지, 평생의 술친구 그리고 모교에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게끔 이끌어준 분이다. “1999년도에 동아대병원 임상교수로 재직 시, 제 개인적 사유로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송별식 자리에서 스승님이신 최병무 교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대학을 나가서 열심히 일해 성공하면 우리 정신과 의국에 꼭 후원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12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맘속에 항상 있던 큰 짐을 내려놓게 된 거죠.” 웃음 한 가득 장난기 머금은 솔직한 고백에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아대학교와 동아대학교병원이 더 발전하고, 우리 후배들과 동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작으나마 제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작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모교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유쾌, 통쾌, 상쾌한 삶을 꿈꾸다

그에게 있어 ‘기부’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다. 1991년부터 시작한 기부의 실천. 그 당시 수녀들이 운영하는 무의탁 노인요양복지원에 직원들을 독려하여 개인당 매월 3천 원씩 소정의 금액을 모아 기부하고 최소 1회 방문을 실천했다. “이 모임의 명칭을 공모했었는데, 제가 낸 ‘나눔’이란 이름이 뽑혔죠. 그 시절엔 나눔이란 말이 아직 기부와 매칭이 되지 않았지만, 요즘 나눔이란 말이 기부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기부에 대한 본인만의 특별한 철학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은은한 미소를 띠며 “저에게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과하지 않고 만족하며 함께 산다는 것과 그에 따르는 행복이 뒷받침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에게 기부 경험 중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해 물어보자 서슴없이 ‘애린원’ 얘기를 해주었다. 현재까지 후원하고 있는 그곳은 수감생활을 마친 출소자 중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곳이다. “얼마 전 TV에서 출소한 분들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과 그분들을 보살피는 애린원 원장님을 조명하는 다큐 프로그가 있었는데, 방송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김윤원 동문의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애린원 사람들이 직접 기른 농작물이나 계란 등을 갖다 준다고 하니, 호의는 호의로써 갚는 선순환을 느낄 수 있었다. 70대에도 초콜릿 복근을 만들어 사진을 남기고 싶다는 김윤원 동문은 끝으로 그의 포부에 대해서 허심탄회 하게 한 마디 하였다. “제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고마움들을 제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분들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 누군가 멋진 삶이 무엇이냐의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김윤원 동문의 삶을 들여다 보면 될 것 같다.

김정길 씨
(용역직원)

십시일반의 나눔, 더 나은 내일을 그리다

어느 날 대외협력처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동아대학교 용역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정길 씨가 학교를 위해 발전기금을 내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며칠 후, 쭈뼛거리며 수줍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정길 씨를 만났다. 그는 적은 돈이지만 학교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1백만 원을 전달했다. 쉬는 날마다 학교에서 나오는 폐지를 수거했고, 이를 고물상에 팔아 조금씩 돈을 모았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김정길 씨의 손은 비록 거칠었지만 동아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비단결같이 보드라웠다.



“ 적은 돈이지만,
제가 받은 감동을 되돌려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그리고 표창장

1987년 2월, 김정길 씨는 총무과 기능직원으로 동아대와 첫 인연을 맺었다. 동아대에 근무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았다고 한다. 슬하의 3남 1녀 모두를 결혼시키고, 부산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1992년 9월에 동아대 교수회관에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이태일 총장님이 직접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총장님의 배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아들의 혼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항상 아랫사람에게도 예를 갖춰 대하는 총장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지’ 하곤 생각했는데, 그 분이 직접 아들의 주례를 서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때를 회상하는 김정길 씨에게서 동아와의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다.

1995년, 그는 문정수 부산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당시 부산지역 대학교에서 컴퓨터 도난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동아대는 야간근무조를 배치했다. 어느 날 김정길 씨는 팀장과 함께 야간근무를 서던 중 이상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를 잡아 파출소로 인계했다. 알고 보니 부산지역 대학교 컴퓨터 도난사건의 범인이었다. 이후, 김정길 씨는 범인 체포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이태일 총장으로부터 시계를 선물 받았다. “범인 집을 수색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여 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방안에 가득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는데 표창장과 선물을 받아 연구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이별, 이어진 인연

김정길 씨는 1998년 8월 정년퇴직을 하게 됐다. 동아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그는 이제 학교에 출근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힘들었다고 한다. “동아대에 근무하면서, 슬하의 자녀들을 번듯하게 키워 시집장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년퇴직을 앞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저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학교 측은 용역직원의 일을 제안했다. 김정길 씨는 자신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고 한다.

그렇게 김정길 씨는 동아대와 계속해서 인연을 맺게 됐다. 학교 당직실에서 격일로 야간 경비 근무를 서게 된 그는 ‘학교에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다. 2012년 5월, 김정길 씨는 경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제안으로 주말마다 각 부서의 폐신문지를 수거해 팔기 시작했고, 이듬해 8월 그는 폐신문지 판매 수익금으로 동아대 당직실에 소형 가전제품을 기부했다. 이어 1년 후, 김정길 씨는 폐지를 판 수익금 50만 원과 사재 50만 원을 출연해 총 1백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제 주위 대부분의 친구들은 쉬고 있어요. 동아대 덕분에 지금 이 나이에든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내가 받은 감동을 되돌려 주고 싶었습니다.”

변치 않을 동아대 사랑

김정길 씨는 건강한 삶을 위해 쉬는 날에는 산을 오르다고 했다. 산을 오르면서 건강도 더욱 좋아졌고, 경비를 보는 일도 더욱 수월해졌다고 한다. “산을 오르면서 육체는 물론 정신도 건강해졌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지요. 생각해보면 제 삶에서 동아대는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사람의 삶이 희로애락(喜怒哀樂)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동아대와 함께 한 저의 삶은 희락(喜樂)이었습니다.”

매일 주말마다 폐신문지를 수거하러 다니는 김정길 씨의 손은 많이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동아대를 생각하는 그의 마음만큼은 어느 비단결보다 보드라웠다. “제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동아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폐신문지 판매 수익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니, 동아대 구성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길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가 보여준 동아사랑에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언제나 동아와 함께할 김정길 씨의 행보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발전기금은 꿈의 마중물이 되고 성공의 디딤돌이 됩니다

팬코 글로벌 존 & 세정 휘트니스센터

동아대학교는 작은 후원의 손길도 소중하게 기억하고 기부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공간에 기부자의 이름이나, 사업체 등 뜻 깊은 명칭을 네이밍하고 있다. 팬코 글로벌 존과 세정 휘트니스센터 역시 네이밍 된 공간이다. 이곳을 오가는 수많은 이들이 후원자들의 아름다운 정성을 늘 기억하길 희망한다.

글로벌 대학의 성장엔진, 팬코 글로벌 존

부민캠퍼스 국제관 건물 1층에 위치한 '팬코 글로벌 존' 이곳은 외국어를 보다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외국어학습 전용공간이다. 사실 글로벌 존은 2009년 12월 승학캠퍼스 인문과학대학 4층에 외국어전용 공간으로 문을 열어 그동안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 2012년 7월부터 부민캠퍼스에 '팬코 글로벌 존'이 마련돼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팬코 글로벌 존'은 우리 대학 경제학과 출신인 (주)팬코 최영주 회장이 부민캠퍼스 국제관 신축기금으로 3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최 회장은 "모교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 공간 건설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 공간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 세계적인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그 뜻을 밝혔다. 여기에 동아대학교는 최영주 회장의 뜻을 기려 '팬코 글로벌 존'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팬코 글로벌 존에는 학생들이 외국어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외국방송 시청은 물론 다양한 외국어 정기간행물, 신문, 교재들이 구비돼 있으며, 원어민 강사와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스태프가 항상 상주해있어 언제든지 외국어로 대화가 가능하다. 또한 무료 강좌, 스터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영어 골든벨, 할로윈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PANKO GLOBAL ZONE



SEJUNG FITNESS CENTER

동아인의 건강을 책임진다. 세정 휘트니스센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지하 1층에는 시간에 쫓겨 운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세정 휘트니스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면적 229.88㎡, 샤워장 및 탈의실이 있으며, 런닝머신 6대, 사이클 4대 등 약 20종의 운동기구와 음향시스템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이 공간은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의 뜻을 기려 네이밍된 공간이다. 박순호 회장은 "후학들이 체력을 튼튼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기업을 경영해 번 돈을 사회를 위해 내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많은 학생들이 마음먹고 운동을 하고 싶지만 사실 사설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정 휘트니스 센터는 동아대학교 교직원, 학생

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고병현 학생(경영학과 09)은 "공강시간이든, 수업이 마치고든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이런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많은 후학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루 2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인기 있는 공간인 세정 휘트니스센터.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의 바람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아인의 건강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당신은 우리가 걷는 외로운 길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후원과 나눔은 동아의 청춘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꿈을 이뤄가는 길목에서 새 길을 열어주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끌어준 그들이 있어 동아인은 더 넓은 세상을 품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동아 아너스 장학재단

동아 아너스(Honers) 장학생 이흥수(경영학과 10학번, 화승R&A근무)

짧은 제 인생을 돌아해보면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눈앞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결국은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장애물을 넘어왔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타는 서퍼' 이것이 저를 표현하는 한 문장입니다.

저는 가정형편 때문에 25살이 되어서야 동아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 일을 하지 않고 도서관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런 생각에 도서관에서 문득 소름이 돋은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며 모아온 돈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충분하지 않았기에, 항상 이변학기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정말 꿈만 같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아아너스 장학생에 선발 된 것이었습니다.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보장받게 되자, 덕분에 마음 한 켠에 있던 불안감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동아 아너스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취업에도 성공하여 행복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빌려 모교와 장학재단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듯이 언젠가 나도 후배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당당한 선배로 성장하겠습니다.



세정나눔재단

세정나눔재단 장학생 강명진(경영학과 09 졸, 화승네트웍스 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화승네트웍스에서 근무 중인 강명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어렵게 편입했기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말자'였습니다. 늦게 학교에 들어간 만큼, 오롯이 내 힘으로 졸업을 하자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생활이 힘들기는 했지만, 목표만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해 능동적으로 참여를 했고, 취업스터디를 하면서 취업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저는 세정나눔재단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덕분에 취업이라는 문턱 역시 쉽게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라는 뚜렷했던 목표는 취업이라는 목표를 겨냥했었고,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과녁을 옮겨 가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햇병아리 사원이지만 저는 이 회사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경영이라는 큰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인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전력투구를 하라고...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누군가는 나의 노력을 알아주고, 누군가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그 과정을 밟아본 선배로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육경장학회 장학생 김진욱(관광경영학과 08 졸, 파라다이스호텔 근무)

취업 때문에 갑갑하고 막막한 생각들로 가득했던 대학교 4학년 시기였습니다. 우리대학교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장학회를 만들어 저에게 주신 육경장학금은 저의 대학교 4학년에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신 장학금이기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 동기나 후배들이 학기 중에 먼저 취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은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일까?' 답답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학생 선발로 통해 저만의 목표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 목표를 세우고 저만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파라다이스 카지노에서 마케팅 지원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러시아에서 오시는 VIP를 위한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고, 돈을 잘 버는 선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선배로 살고 싶습니다. 후배들로부터 "김진욱 선배처럼 살고 싶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저의 작은 가능성을 알아보고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경장학회



왼쪽부터 김도엽(도시계획학과 10학번), 박태훈(도시계획학과 13학번)

나눔을 통해 희망의 싹을 틔우다

최근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유명인이 루게릭 환자를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여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자신을 지목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와 다음 주자를 정하느라 분주하다. 이는 무거운 마음을 담아 많은 돈을 기부해야 한다는 방식에서 탈피해, 보는 이들은 물론 다음 참여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즐겁게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우리 동아대학교에도 이처럼 즐겁고 따뜻한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공모전 상금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쾌척 도시계획학과 김도엽, 박태훈

지난 6월, 도시계획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이 대외협력과를 방문해 도시계획학과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 두 학생은 도시계획학과 김도엽(10학번), 박태훈(13학번) 학생.

두 학생은 (사)미래건설포럼이 주최한 '미래부산 2030' 공모전에서 '고가도로 밑 데드스페이스 활용방안' 아이디어로 금상을 차지했다. 죽은 공간인 고가도로 밑에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아이디어로 공간을 살려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특히 대부분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다른 참여자들을 제치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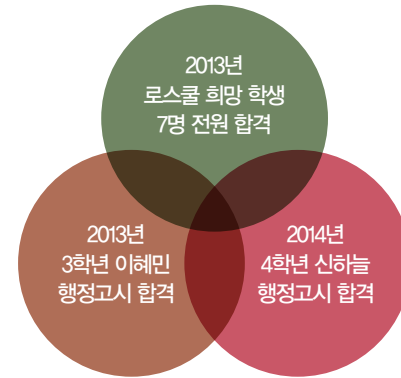
김도엽 학생은 "처음에 공모전을 준비할 때부터 상금을 받는다면, 상금의 일부금액을 발전기금으로 기부 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다"고 말했었다. 준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시계획학과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상금을 받아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더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박태훈 학생은 "상금의 일부분을 쪼개 기부한 것이라 적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우리가 낸 발전기금이 다시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아쉽거나 아깝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부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열마를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부를 했다' 라는 작은 실천이 중요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고 한다.' 머릿속 생각을 뜨거운 가슴으로 실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들의 작은 실천이 더욱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석당인재학부 성과



학생, 학부모, 교수가 만들어가는 3인4각, 대물림되는 내리사랑으로 기부에 동참하다

지난해 10월,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학부모 자치회(회장 서정윤)에서 부민캠퍼스 총장실을 방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과 후학양성의 목적으로 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약정금액은 향후 10년간 약 1억 8천만 원. 학부모 자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서정윤 씨는 "사실상 직계 선배가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기부라는 방식으로 선배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석당인재학부는 동아대학교 설립자이신 故 석당 정재환 박사의 호를 따 만든 독립 학부로, 맞춤형 교육과정과 파격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집중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올해부터 첫 졸업생을 내기 시작한 석당인재학부는 로스쿨지원자 전원 합격, 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 등 파격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부모의 내리사랑에 학생들도 답을 보냈다. 석당인재학부 학생회는 지난 4월 부민캠퍼스 국제관에서 이틀간 바자회를 열고, 여기서 얻은 수익금 112만 3천 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한 것. 석당인

재학부 학생회는 바자회를 위해 교수 및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물품을 기부 받았다. 또한 바리스타, 네일아트, 패션 등에 재능을 가진 석당인재학부 학생들이 재능기부에 나서, '패션 스타일링 클래스'와 '좋은 원두 고르는 법' 등을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대근 석당인재학부 학생회장은 "앞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단합하고, 개인의 발전은 물론 우리 학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동규 석당인재학부장은 "이러한 기부 릴레이를 통해 학생들이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기르고, 학생 때부터 자연히 기부 문화를 익힘으로써 졸업 후에도 모교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모, 학생, 그리고 교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통해 석당인재학부가 동아대학교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재 양성의 집합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왼쪽부터 이대근(석당인재학부 학생회장, 4학번), 이동규 교수(석당인재학부장), 서정윤 회장(학부모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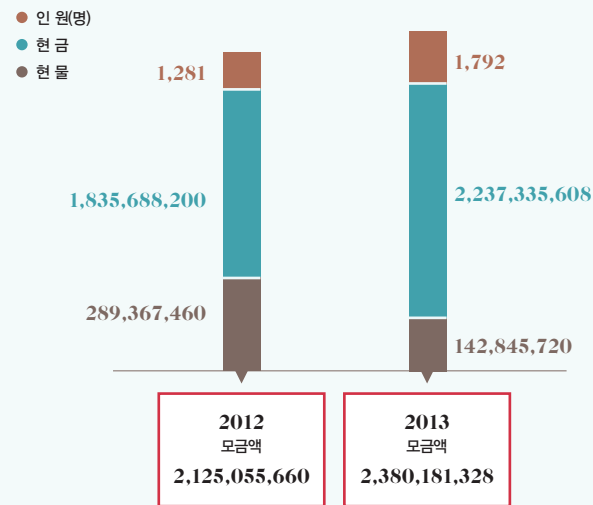


최근 2년간 발전기금 총괄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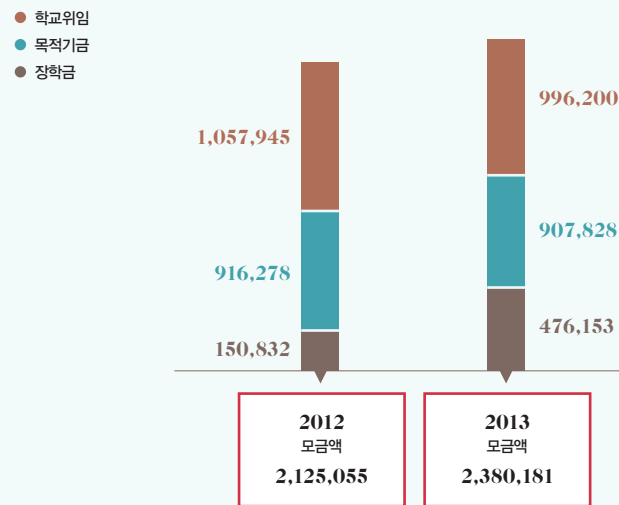
여러분의 참여로 동아대학교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동아대학교 발전기금은 지속적인 참여의 손길이 이어져 기부 횟수와 기부자 수에 있어 변함없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인재양성에 대한 후원을 실천해 주시는 기부자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아대학교가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18만 동아가족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발전기금 모금현황 (단위: 천 원)



목적기금별 모금현황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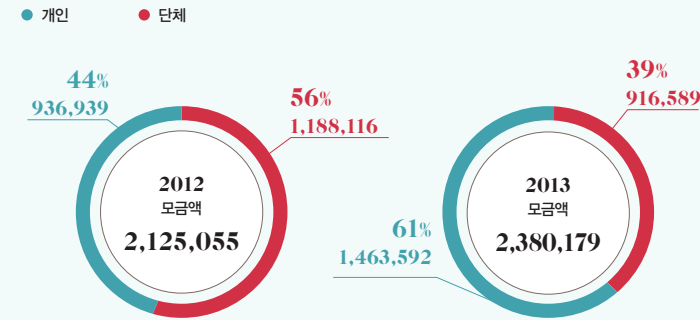


금액구간별 모금액 통계(201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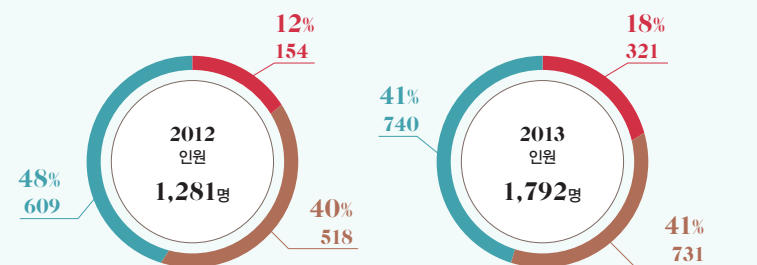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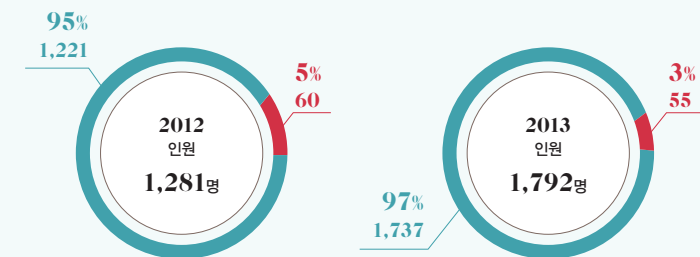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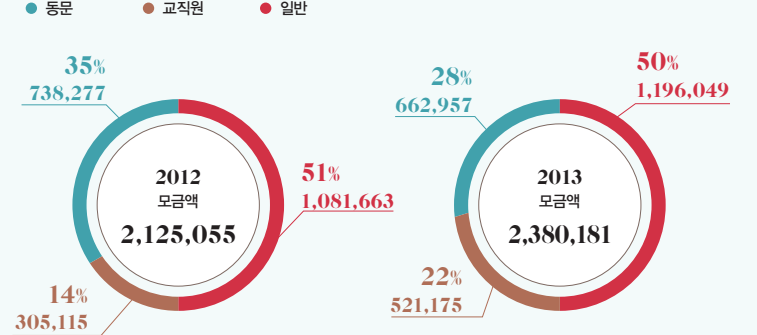
Year	Category	5억 이상	1억 이상	5천 이상	3천 이상	1천 이상	5백 이상	3백 이상	1백 이상	총 합계
		2012 모금액 (천원)	700,000	447,110	-	174,105	283,183	109,016	211,920	
2012 인원 (명)	2	4	-	5	20	19	129	1,102	1,281	
2013 모금액 (천원)	-	551,478	250,000	327,494	406,720	132,888	441,606	269,993	2,380,179	
2013 인원 (명)	-	4	5	10	28	22	272	1,451	1,792	

기부 주체별 구성비교

개인, 단체, 법인, 재단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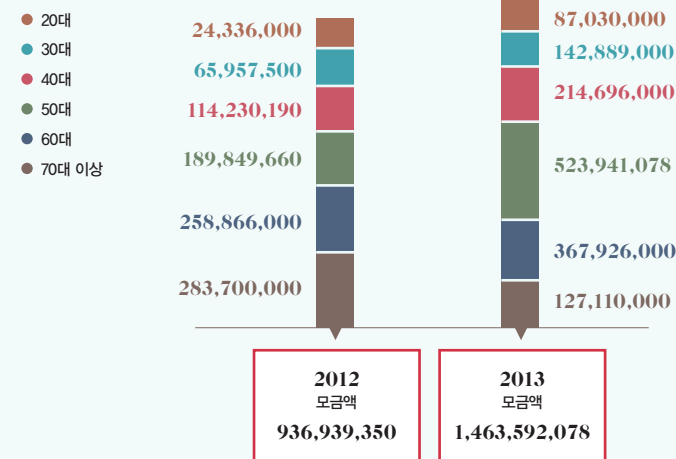


교우, 교직원, 일반, 학부모 (단위: 천 원)



개인 기부자 연령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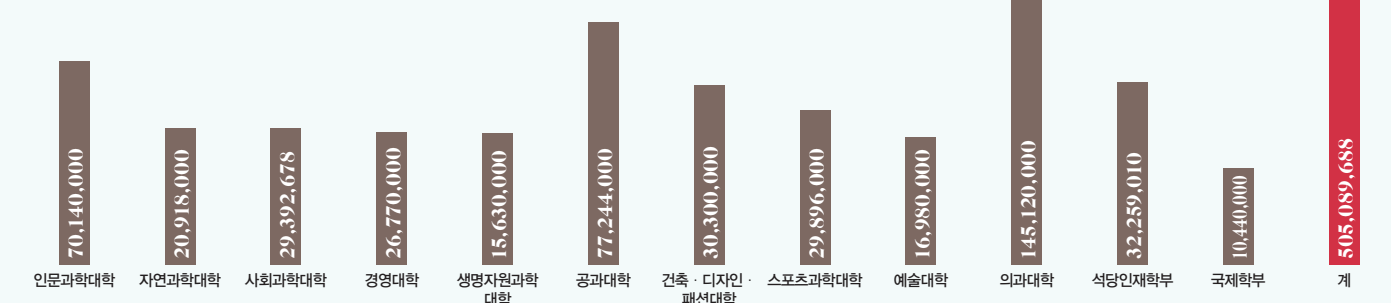
모금액 (단위: 원)



인원 (단위: 명)



2013학년도 대학(원), 학부별 발전기금 모금현황



기부 캠페인 소개

기부, 대학과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

여러분의 참여로 조성된 발전기금은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동아대학교를 세계 속의 동아로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아대학교의 기부 캠페인은 단순한 발전기금 모금이 아니라 대학과 동문, 재학생 모두가 서로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아인의 자부심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특별한 의미를 담은 캠페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부자 여러분의 필요에 맞추어 해당 캠페인 별로 기부자의 깊은 경륜의 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칭)국제교류관 건립 기금 모금



세계 글로벌 명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우리 동아대학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가칭)국제교류관 건립계획이었습니다. 개교 70주년 기념 국제교류관 건립 기금 모금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해외 인재유치를 위한 캠페인입니다. 총 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고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국제교류관은 동아대학교 글로벌화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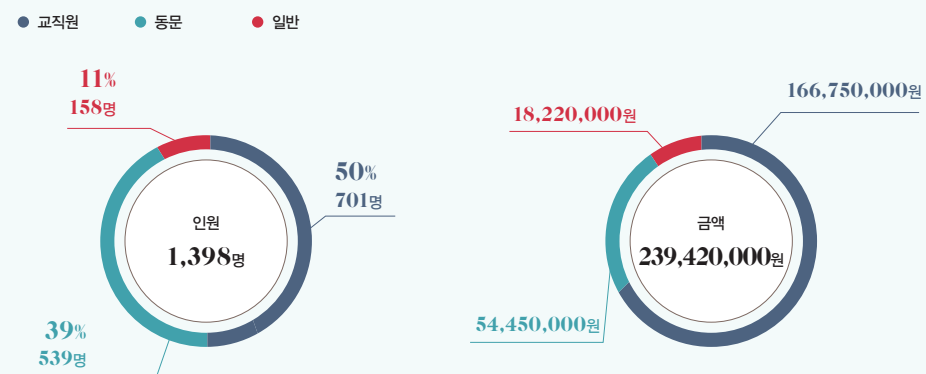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국제교류관 건립을 통해 동아대학교가 세계 속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아대 국제교류 프로그램(전 세계 25개국 167개 기관)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아사랑 1인 1계좌

동아사랑 1인 1계좌는 매달 1계좌에서 1만원씩 동아대학교에 기부를 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인재양성에 투자할 수 있다는 가치 있는 운동입니다. 만(萬)원의 정성을 모아서 동아대 및 학생들의 발전을 도울 수 있게 희망을 만(滿)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은 1계좌 당 1만 원으로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좌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13학년도 동아사랑 1인 1계좌 모금 실적



네이밍 도네이션

우리 동아대에서는 기부 예우 차원에서 건물, 강의실, 의자 등에 기부자들의 아호를 명명하여 Naming을 새기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의 고귀한 뜻을 우리 미래 동아인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 건물,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

예우 서비스 : 동판 제작, 최초 방문 서비스, 관련 사진 홈페이지 업로드



- 기부자 청춘 김만수 동아타이어공업 회장
 - 기부액 2억 원
 - 위치 승학캠퍼스 본부건물 1층
 - 용도 귀빈행사 및 강의
- 면적 336㎡



- 기부자 김재진 경동건설(주) 대표이사
 - 기부액 4억 5천 1백만 원
 - 위치 승학캠퍼스 본부건물 3층
 - 용도 귀빈행사 및 강의
- 면적 336㎡



- 기부자 김관음행(金觀音行) 님
 - 기부액 5억 원
 - 위치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 1층
 - 용도 귀빈행사 및 강의
- 면적 37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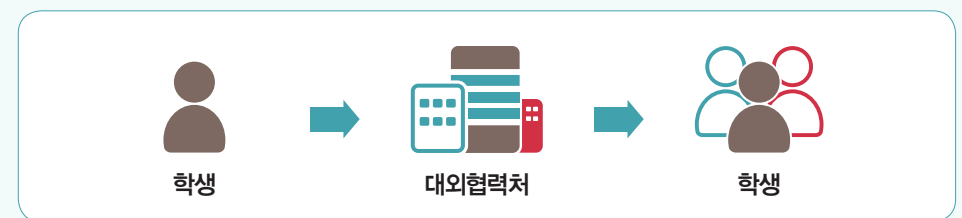
- 기부자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
 - 기부액 1억 원
 - 위치 부민캠퍼스 국제관 건물 지하 1층
 - 용도 재학생 및 교직원 심신단련
- 면적 229,88㎡



- 기부자 (주)팬코 최영주 회장
 - 기부액 3억 원
 - 위치 부민캠퍼스 국제관건물 1층
 - 용도 외국어 교육의 장
- 면적 91,50㎡

장학금 돌려주기

장학금 돌려주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후배들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교육균등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은 미래 동아인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되게끔 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후원의 집 안내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 업소를 말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후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방법

- 후원의 집 가입을 원하시는 업체는 대외협력과 (051-200-601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위에 후원의 집을 희망하는 업체를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로 추천해주시면 직접 방문해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가입시 혜택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후원금에 대하여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 명절마다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및 수첩 발송
- 본교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및 동아대학보에 지속적으로 소개
- 본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에 등재
- 교직원, 학생, 동문 및 교내 행사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전 교직원 메일 발송

가입문의

Tel (051)200-6012~3
Fax (051)200-6015
Homepage <http://fund.donga.ac.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

신규후원의 집 안내 2014년 2월 ~ 10월



137호점
병천순대국밥
 병천순대국밥은 시원한 국물맛이 일품인 국밥이 대표 메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천순대를 비롯해 솔뚜껍 삼겹살, 감자탕까지 다양한 메뉴를 푸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내부 공간이 구비되어 있어 회식자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08 (하단동)
연락처 051-207-3375
주메뉴 국밥 6,000원, 감자탕 : 13,000(小)~
 솔뚜껍 삼겹살(130g) : 6,000원



138호점
센텀뷔페
 센텀뷔페는 한식과 양식, 중식, 일식 등의 다양하고 정성스런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까다로운 식재료 선별은 물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회장과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각종 행사나 단체모임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교직원증 또는 학생증 제시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87 3층
연락처 051-206-4600
가격 및 영업시간

구분		대인	소인	유아	비고
월~ 목요일	점심	13,000	12,000	6,000	동아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할인 10% (신분증 제시 시)
	저녁	22,000	13,000	6,000	
금요일	점심	13,000	12,000	6,000	
	저녁	23,000	14,000	6,000	
토/일요일	점심	25,000	15,000	6,000	
	저녁	25,000	15,000	6,000	



139호점
화이트치과 센텀본점
 화이트치과 부산본점은 분야별 전문 의료진이 체계적인 협진으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의 치아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안전 치료 장비를 비롯해 멸균소독시스템, 자체 기공소 운영 등을 통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특별할인혜택(신분증 필요)도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우동) 임페리얼 4F
연락처 1544-2944



140호점
기와집
 기와집은 1+ 등급 국내산 암소 한우만을 취급하는 한우숯불구이 전문점입니다. 쾌적한 공간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최상급의 한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점심특선 메뉴인 파불고기전골 및 왕갈비탕, 해물된장찌개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족 외식이나 각종 모임 장소로 추천합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266-1 (하단동)
연락처 051-201-1949
영업시간 11:30 ~ 22:00
주메뉴 갈비살, 등심 13,000원 / 안창살 20,000원 / 왕갈비탕 8,000원
 해물된장 6,000원 / 솔뚜껍 삼겹살(130g) : 6,000원



141호점
Min Camp
 Min Camp는 경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레저샵 중 하나로, 서핑과 스키에 관한 전문 장비와 Go Pro(레저용 카메라), 오를리 선글라스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공식 지정 판매처입니다. 또한 Surfing Academy를 운영하고 있어 서핑에 관심 있는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Min Camp에서 취급하는 모든 장비와 강습비를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75 (광안동)
연락처 051-757-2588
취급제품 서핑장비, 스키장비, Go Pro(레저용 카메라), 오를리 선글라스 등



142호점
파리바게트 부민점
 파리바게트 부민점은 매일 갓 구운 빵은 물론, 깔끔하고 넓은 카페를 구비하고 있어 교직원 및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과 점심에 잠시 들러 만족할 수 있는 맛과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8 (부민동1가)
연락처 051-241-0082
영업시간 07:00~24:00



143호점
라라코스트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으로 화덕피자, 파스타, 필라프, 스테이크 등을 맛볼 수 있는 라라코스트 하단점을 소개드립니다. 맛은 물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74
연락처 051-207-3230
영업시간 11:00~22:00
주메뉴 화덕피자(9,900원~), 파스타(7,500원~), 필라프(6,900원~), 스테이크(8,900원~), 음료수(무한공짜)



144호점
소야소
 고기 굽는 카페 소야소(SOYASO) 부민캠퍼스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야소(SOYASO) 부민캠퍼스점에는 소고기 4인분을 주문하면 4인분을 추가로 제공하며, 치즈등갈비와 크림 막걸리 등 색다른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는 특별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6번길 8 (부민동1가)
연락처 051-245-1027
영업시간 11:00~23:00
주메뉴 숯불양념 소고기 삼총사(48,000원, 1.2kg) 양념 소갈비살, 소갈비살 정식 등

